朝鮮日報
夕刊 五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英首相、下院에서 御結婚反對表明

皇帝의 結婚意思가 强硬하면 政府와 正面衝突未免

【倫敦四日發至急報同盟】 볼드윈首相은 四日午後三時半下院에서 左와 如히 聲明하엿다

皇帝陛下께압서御希望하압시는 御結婚을容易하게하는法律을議會에 提出할생각은업다 問題는英帝國全部의 關心事이다따라서 特別한 法律을 制定하야 特別한 御結婚을 容易하게하려는일은 全然自治領의 承認업시 實行할수업다 各自治領은 이일에 對하야 承認할수업음을 明白히하얏는데余는 이各自治領의 態度를滿足하게생각한다

首相의 聲明이 끗나자 勞働黨首領아틀리少佐는 假令時間에 餘裕가잇다고하여도法案을 提出한다든지 動議한다든지 하는것은 바라고십지 안타 我等은首相의 聲明에滿足하는바이다

고述하얏슴으로 質問하는사람도업시 下院은散會하엿다

【倫敦四日發同盟】 심프손夫人의 國外退去로 一般的으로 問題는事實上解消된것으로 보여섯는데 볼드윈首相이 下院에서 結婚을容易케하는法律을 議會에提出할意思가업다고 聲明하고 政府의態度를 明白히한結果 萬一皇帝께서 御結婚을 主張하실 時에는 皇帝와政府와의 正面衝突은 不可避하게되엿다

正은 四日午後 베르베데리야宮에赴하야 皇帝陛下에게 拜謁하고 約三十分間協議하얏다

御退位時는 第二皇弟御繼承?

【倫敦四日發同盟】 에드와드八世가 드듸여御退位하다고決定되면 王位繼承의順序로 皇弟요크公殿下가御繼承하압실터인데 殿下께옵서는 御兄君陛下에對하야 王位繼承의御意思가 업스시압는旨를말슴드렷다하다 萬若事實이라고하면 御退位決定時 第二皇弟그로스터公殿下께압서 王位에나가게될것이다

御結婚? 御退位? 重大岐路直面

『욕』公殿下秘書、首相과密談

【倫敦四日發同盟】 英國皇帝陛下의 御結婚式問題를 中心으로 여러가지 風評이 亂飛하야 形勢混沌되여 捕捉키難하나 심프손夫人의 國外退去가 判明되엿슴으로 一般으로問題는 事實上解決된것으로 보게되엿다 妥協案은 政界其他有力方面의 支持가적어 問題外로 되엿슴으로 皇帝陛下의 御退位나 結婚御斷念이냐라는 岐路에 서게되엿스나 陛下께압서는 마침내 御結婚을 斷念하압시고 심프손夫人이自發的으로 退去하야 玆에形勢는 緩和된것으로解釋되다

【倫敦四日發同盟】 볼드윈首相은 四日午後十時 官邸에 요크公殿下의秘書비빌氏의 訪問을바더 暫時密談을하엿다 首相은 直時호아海相 헬벌린藏相을 招致하고 重要閣議를開하엿다 요크公殿下는午後十時버킹감宮殿에行啓하시엇다가同三十分御歸還하시엇다

【倫敦四日發同盟】 볼드윈首相이 絕對緘默을 직히고잇기때문에事態의眞相은 全然不明하고 形勢

倫敦新聞은 贊否兩論

微妙한것하나론도타임스紙는四日紙上에서 『身分이다른 御結婚은可能性이업다』는것을 力說한一方뉴스크로니클紙其他는『內緣結婚』贊成하는 意思를述하엿슴으로볼드윈首相도 이에움직이게된것이라고觀測하는方面도잇다

칸타베리大僧正 皇帝께拜謁

【倫敦四日發同盟】 칸타베리大僧

現地官憲을支援코 通牒內容을實行

陸海外省間意見一致

【東京電話同盟】 三日의 川越、張羣會談內容은 四日外務省에到達하엿슴으로 有田外相은 同日定例閣議散會後 外相官邸에 寺內陸相、永野海相及 陸海外省關係局長의 參集을 求하야 對中方針에關하야 意見을 交換코更히 午後二時부터 有田外相을中心으로 梅谷陸軍、豐田海軍兩軍務局長 桑島東亞局長等이 中國의 態度及 交涉決裂에 依하야 發生하는 日中關係의惡化에 備하는 第二段의 善後處置에 對하야 關係省首腦部間에 協議한結果 어데까지든지 現地官憲을 支持하야 三日川越大使가 文書로서 張外交部長에提出한 日中間合意로 成立한

一、航空連絡

二、關稅引下

三、日本人顧問招聘

의 諸項目에對하야 速히 實行을 促進하도록하고 또 右三日의 本文은 最後通牒의意義를 가진으로 이에對한 中國側의回答을還元시키는 說明을不許코 다만諾否만을 求할方針인데 國民政府가 明確치안흔態度로써應酬하는境遇에는이것을一蹴하야 交涉을中止코適切한 自衛手段을 講究하겟다는 結論에到達하야 中國側의今後態度를 注視키로하얏다 그리고 有田外相은 午後五時官邸에 廣田首相을 訪問 右의方針을 說明하고 諒解를 求하얏는데 中國側으로부터 어떠한回答이잇는境遇는 緊急閣議를열고最後的方針을 決定하것는데 그때까지는 川越大使로하야금 適宜의處置를 取케하기로되엇는데三日의 川越張羣會談에서中國側은日中合意로成立한共同試案에對하야도 事實에相違의 點이잇다고하야 이것조차拒否하는不誠意를 敢行하야 日本側으로부터 提出한 文書에對하야도 受理치못하겟다고 이것을 拒絕하야日本側과 問答을거듭하고도로혀靑島事件、綏遠問題等 當치안흔問題를들어서 日本側에 迫하야逆說的抗議를하는 點으로보나 到底히 圓滿解決은 바랄수업다그러나 一切는近近 行하기로되여잇는 須磨高宗武會談에서 高亞洲司長으로부터 國民政府側의最後的方針의 披瀝이될것으로推測됨으로 今後數日의 擔涉가 가장注目되다

佛外相、下院에서 英白援助를宣言

英外相演說에對한回答的演說

【巴里四日發同盟】 佛外相델보-스氏는 四日午後 下院에서 刻下의 國際政局에 對處할 政府의 外交方針을 闡明하여 델보外相은 對英對獨關係並 西班牙內亂問題를 中心으로 政府의方針을 示하엿는데 特히 英白兩國이 挑發이업시 侵略을 밧는때에 佛國은 主로 兩國을 援助할旨를 聲明하야 多大한 注目을 惹起하엿다

右는 英國外相 이든氏가 리밍톤에서 行한 演說에 對한 回答으로 보이는데 델보外相의演說은 如左하다

▲對英關係

余는 英國 白耳義가 挑發이 업시 第三國의侵略을 受하는境遇는 佛國은 全陸海軍을擧하야 卽時 그리고 自動的으로 兩國을 援助할旨를 宣言한다

▲對獨關係

歐洲의平和를 確保하기爲하야 獨佛兩國間의 親善이 必要하다 우리는 歐洲의制覇도 獨逸包圍도 希求하지안는다 따라서 獨佛兩國이 友好關係를 結할수업는理由는업다 佛蘇相互援助條約은 侵略的性質의것이아니다 他國이 此에參加하여도 無妨하다

▲西班牙問題

佛國政府는 西班牙內亂勃發以來 歐洲平和를爲하야 終始紛糾의 擴大防止에努力하엿스나 國民大多數는 政府의不干涉政策을支持하고잇다 余는 恒常西班牙共和國에對한 同情을表明하엿다 그러나 余는 責任잇는 外相으로서 셋트멘的 考慮를 가질수업다 不干涉協定의破棄를 主張하는사람도 責任잇는地位에서면 아마余와同樣의態度를 取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巴里四日發同盟】 佛國政府는 目下의 國際情勢에 鑑하야 英國政府와의 盟邦關係를 强化하야 英吉利가 挑發하지안코 侵略을바들境遇、援助에 赴하기로 決定하엿다고 델보外相은 五日佛國下院에서 以上의外交方針을 宣明할터인데 宣言要旨는 如左한것으로 解釋되다

一、英吉利가 挑發하지안코 侵略을 바들境遇 佛國政府는 援助에 赴할것을 確約함

一、로카르노體制에 關하야는 佛國政府는 英吉利政府의 保障義務와 同樣 英吉利에 對하야 保障義務를 負함

一、佛國政府는 聯盟主義를 堅持하고 또 歐洲諸國과 同盟關係를 計劃함

一、西班牙內亂에 對하야는 不干涉政策을 嚴守하고 또海洋의 自由를 保持하야 地中海에잇는 自國의 權益을 擁護함

英首相言明內容

【倫敦四日發同盟】 볼드윈首相은 四日 午後三時四十分 下院에서 皇帝의 御結婚에 對하야 左와 如히 言明하엿다

皇帝가 御結婚하압시기로 決定하시드라도 皇帝의 御夫人은 반드시 皇后가되지안흐면 안되다는 議論이 들리나 以上의 見解는 何等 憲法上基礎가업다 英國의 法律에는 身分이 다른 結婚이라는 槪念은업다 如斯한 結婚을 避하는 唯一한 方法은 特定한 境遇에 對하야 法律을 制定하는것인데『陛下의政府』는 如斯한 法律을 提出할 意思가업다 一七七二年의 皇室結婚令은 皇帝御一身에는 適用치안는다 皇帝以外의 皇族의 結婚에는 皇帝는 國璽로서 御承認을 盼附치안는限 無効라는것이 同法令의唯一한 主旨이다 따라서 法令은 今回의事件과는 無關係하다 陛下御自身의 御結婚을 合法化하기爲하야 他의 權威로부터 許可를 바들 必要는업다그러나 陛下와 御結婚하시는女性은 陛下와 御結婚한다는事實에 依하야必然的으로 皇后가되고 따라右女性自身도 御地位와 法律과 慣習에 依하야 右御身分에 歸屬할 一切의 權利와 特權과를 享受하게된다 以上이 알렉산더三世와 메리皇后와의先例에 徵하드라도 明瞭한바이다 그리고 右御結婚에 基한 皇子는 直接王位를 繼承하는 順序인데 今回의 問題는大英帝國全體의 共通된 關心事로如斯한 法制上 變更은 自治領全體의 承認이 업시는 效力이 업다 余는 各自治領에 照會하엿스나 各自治領도 모다如斯한 變更을 承認치안는 것이判明되여 滿足하다

余는 一般의 誤解를 除去하기爲하야 下院散會에 압서 以上을 聲明함이 正當하다고 생각하엿는데 現在 右決定以上으로 聲明할수는 업다

以上首相의演說이終了되자 勞働黨首領아트리少佐는 左와如히述하엿다

現在에잇서서는 首相의演說을 批判乃至討議하려고 하지안는다 볼드윈首相의 演說에對하야 下院은 모다 가장重大한 考慮를 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아트리少佐後에는 質問者도 업고 午後六時前散會하엿다

話題和說

內蒙自治運動

內蒙의自治運動은 멀리淸朝滅亡前後에서 端을發하엿다。 이運動이 가장具體化하고 表面化한것은 滿洲事變後이다。 滿洲事變及 滿洲帝國의成立에 刺戟되여 中華民國으로부터離脫하야 成吉思汗以來의 傳統을 誇하고 內蒙自治의旗幟를 세우고 七萬의兵을擧하야 綏遠으로侵入을開始한것이 今日世人의耳目을集中하는 綏遠問題이다

德王은內蒙自治運動의中心人物로 內蒙名門出生이다 幼時 北平 蒙藏院에서 修學하고 其後 그의王府蘇尼特(東烏珠穆沁旗의 王府)에서 內外人의 家庭敎師로부터 泰西事情을 研究하고 政治、外交、[illegible]

治에 關한 要求를 提出하엿스나 南京政府의 態度强硬으로 內蒙에 도라와 自治遂行을 決意하고 爲先 內蒙의 結束을 先決로 이에 邁進하엿다 一九三三年夏 綏遠省北部의 百靈廟에서 內蒙各盟旗長官全體會議를 開催하기에 成功하고 其結果 南京政府에 內蒙高度自治要求의 通電을 發하엿다 다음에 十月九日부터 二十四日까지 一週間에亘하야 同地에서 雲王(烏蘭察布盟長) 德王(當時錫林郭勒副盟長)主宰下에 自治會議를 開催하고 自治政府大綱을 決定하엿다 南京政府는 當時內政部長黃紹雄氏를派遣하야 威壓과 懷柔로 破壞工作을 行하

엿스나 德王等의 蒙古가 遂行 하기때문에 마침내 內蒙自治의 辦法을 決定하고 이에 高度自治政務委員會(蒙政會)가 百靈廟에 設立되엿다。 右委員會設立後 內蒙과 南京政府와의 關係는 一時少康을保하엿스나 元來德王等의 要望은 中國本土로부터의 離脫하는데잇슴으로 마침내 直接行動을 發動하게 되것이다

最初의事實은 一九三五年末 卽昨年 이지음 蒙古保安隊에 依하야 察東六縣이 德王側에 편입되엿다 同司令部 陸海(卓資山)札布)은 李守信軍의 應援을 엇어 一九三五年十二月中旬 察哈爾東部에서 兵을 이르켜爲先 沽源、康保兩縣을 攻略하고 同月三十一日까지에 다시 寶昌、商都、德化三縣을 併合하고 張家口 多倫交通路의 要衝張北에 入城하야 第一次

作戰을 終了하엿다 今年一月五日 蒙古에서 內蒙 中國側双方代表가 會合하야 善後策을 協議한 結果 前記六縣에잇서서 蒙古保安隊의 駐屯이 確定되엿다 右로 保安隊가 德王의 實力的 地盤이 되엿든것은 勿論이다

南京政府는 [illegible]을 懷柔하야 [illegible] 德王一派의 [illegible]을 늦고잇는 [illegible]의 [illegible]을 離間하고 [illegible]의 作戰을 움직여 [illegible]로 德王을 [illegible] 마침내 身邊의 危險을 感하고 百靈廟로부터 [illegible]으로 [illegible]하여 [illegible]의 秘書格인 [illegible] 되엿다。 그리고 年一月二十五日 綏遠內蒙自治委員會組織條令을 公佈하야 委員長 沙王以下 委員을任命하

고 [illegible]、商都、德化等 察東 [illegible] 及 綏東五縣으로 되엿다。

右는 綏遠省內에 잇서 王의 勢力을 驅逐하고 其自治運動의 [illegible]를 企圖하엿다。 德王은 自治의 旗幟를 鮮明히 하고 第一軍司令에는 李守信 第二軍司令에는 德王을任 미려 車佐海 包悅卿 王英等의 蒙古諸將을 十一月十三日 紅格爾圖에서 最初의 戰端을 이르커 綏東綏遠東部와 北部에서 [illegible] 行動을 開始하엿다 最近情報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綏遠省主席傅作義에 對하야 百靈廟를 死守하라고 嚴命하엿다 한다 百靈廟는 일즉 德王等이 內蒙自治政務委員會를 設立하엿든곳이다 이곳이 中央軍에게 奪取되고 바야흐로中央軍은 百靈廟로부터 武川 固陽에亘하야 增加配置하게하는 模樣이다

西兩軍모다攻勢

政府軍은 叛軍政權所在地迫到

叛軍은首都를猛爆擊

【마드리드四日發同盟】 叛軍의精銳爆擊機三十臺는 四日午後三時 마드리드市上空에 出現하야 로나레스、알크레스兩區에 猛烈한 爆擊을 敢行하야 人命、建物에 多大한 損害를與한一方 바스크戰線에서온 報道에依하면 政府軍은 要衝비토리아市로부터 叛軍을 擊退하고 다시 叛軍은叛軍政權의 所在地 부르고스市를 隔하기東方四十五粁의地點에 迫到하엿다 한다

省의廢合案

來議會에는不提出

【東京電話同盟】 中央行政機構에 關한 四相會議는 爲先 綜合機關實現에關하야 十一月十六日 第三次會議에서 所謂內閣總務廳案의 骨子를 決定하고 이에基하야 次田法制局長官의 手許에서 案을 考究하고 잇는데 늦드라도 今年末까지에 具體案을 形成하야 閣議에報告할 方針으로 進行하여왓다 四相會議案에對하야 軍部、調査局側의强硬反對意見을 開陳하엿기때문에 四相會議도 總務廳案의 再檢討를 不得已하게되여 今年內에具體案을 엇기는 困難하게되엿다 其結果 廣田首相 四相은 當初의 意向인 來年初總務廳問題에 繼續하야 省廢合問題도議會再開前까지에 大綱이라도 決定하고 이것으로써 議會에 臨할意氣인데目下 會議에서는 總務廳案審議에 忙殺되면 省의廢合에서 觸할餘暇도업고 따라서 軍部가 要望하는 省의廢合問題를 來議會에 提出할수업서 議會終了後까지 遲延될 模樣인데 軍部의 推移에 對하야 如何한 態度를取할는지注目된다

大野政務總監 八日에 滿

大野政務總監은 朝滿國境架橋協定書調印及朝滿一如의具現에 關하야 在滿各方面과 協議하기爲하야 來八日午後一時四十分京城飛行場發旅客機로 滿在四日間豫定으로 新京에 赴하기로되엇다 그리고 相川外事課長、天野秘書官도 隨行할터이다

朝鮮社會事業協會

役員及職員決定

朝鮮社會事業協會에서는 今般左記와가티 陣容을整頓하게되야新任役員及 職員을決定하엿다

會長 大野綠一郎

副會長 大竹十郎

理事 吉田浩 有賀光豐 丹羽淸次郎 朴榮喆 韓圭復

評議員 富永文一 增永正一 篠田治策 湯村辰二郎 井上淸 小林源六 河駿錫 金能秀 方台榮 朴興植

幹事 柳生繁雄 西龜三圭

主事 令里新藏

故齋藤子遺業을顯彰

記念事業을準備

京城에도銅像을建設

故齋藤子의 遺業을 顯彰할目的으로 秀雄伯 會長下에 設立된 『故齋藤子爵記念事業會』에서는 故子爵이 二次總督으로 在任하엿고 特히 故緣기픈 朝鮮에도 賛同을 勸하여왓슴으로 總督府에서는 卽時實行委員으로 大野政務總監 林財務局長 加藤朝銀總裁 有賀殖銀頭取 野口朝窒社長을 擧하고 同會의事業으로 第一에着手할故子爵의傳記編纂에는 林財務局長이 朝鮮側委員으로 參加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故子爵의銅像은 鄕里岩手縣水澤町과 京城에 建設하기로되여 傳記編纂과 함께 海東의重鎭 政界의巨人輔弼의 重臣으로서의 日記도 上梓할터이다 此等事業은 昭和十四年에 完成할터인데 日本內地及朝鮮으로부터 各十五萬圓을募集하기로 되엿슴으로總督府에서는 目下 前記五實行委員下에서 具體案을 考究하고잇는바 明春初在鮮各方面의名士를 委員에擧하야 同會朝鮮支部를 創立하고 事業計畫遂行에當하기로되엿다

人事·集會

▲金琴基氏(朝鮮警察新聞社社會部長)新任人事次來社

八面鋒

◇ 最近咸鏡南北道를 一瞥하고 돌아온 八面鋒子。

◇ 所感의一端을말하자면 여러가지가잇겟지만。

◇ 北朝鮮開拓의 新景氣에 生動하는光景만보앗다면 愉快한 일일것을。

◇ 山에 海에 無盡藏의富庫를 눈아페 보면서도 이를利用하지 못하는사람이잇슴은 가이업는 일。

◇ 그는그러타하고、羅津에서京城까지 지리五十一時를 二十三時間에달리는直通車나紹介할가。

◇ 三等으말할것도업고、二等車도二重窓에 煖氣가 새여들고 萬하면 눈(雪)까지 스미어든다。

◇ 二千里三千里를 徒步하든時代는말할것도업고、開拓列車가 이따위 「보로列車라함은」 鐵道當局의體面問題。

科喉咽鼻耳
醫學博士 美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五五番
備完室院入

年賀狀及名刺大勉强
最新モダン式印刷機ヲ利用シ鮮明ニ印刷が出來マス
私製ハガキ(アイ) 百枚送料共 七十五錢
同 (ツヤ) 六十錢
同 (普通) 五十錢
同 (畫) 五十錢
名刺普通型(ケント) 一圓五十錢
同 (アイボリ) 一圓三十錢
同 (ツヤ) 六十錢
同 (普通) 五十錢
見本申込次第郵送ス但要三錢切手
御註文際必ズ前金ニテ御願シマス
京城府大島町四三
大島印刷所
電話龍山二九五番

朝報案內
探犬
秋田犬雄(四歲)名稱マク 特長 特히毛短耳黃褐色體白黑斑長二尺尾短 十二月二日行方不明 居所를通知하아주시면謝禮表하겟습니다
寬勳町一九七의九 劉獻烈

流行歌 讓許的
참인가거즛인가
李圭南 白羽扇
빅타-
쌀루등하지마세요 白羽扇
레코-드番號 四九四三九

長期低利 件及借換 利酬無 立替 共有 地方人士 新
恩給 는 쉬 照會 詳細
京城 授恩町 一六〇 鄭商會

特約店
京城南大門通新井藥房
同本町一丁目木村藥房
釜山辨天町大黑南海堂
同 本町四 大和藥房
平壤大和町森田藥店
大邱 本町 町田藥店
大阪市天王寺東平野町三(電車上五)
電話南四〇一五番·振替大阪七五一四番

藥價 「스페로인」 六日分一圓、十五日分二圓、二十五日分三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有名藥店에有함)
萬一 品切時는直接으로送致、前金은無料代金引換五十錢加
スペロイン發賣元 東亞藥園
有名藥店에잇슴

適用症 「천식」 氣管支加答兒、氣管支擴張、완고한기침、肺病、神經痛、偏頭痛其他기치의諸症

「스페로인」의偉大한作用

◇「스페로인」을 服用하면 猛烈한藥効作用을 나타내어 喘息의毒素를巧妙히小便으로배는 强心性의貴重한 化學藥입니다
◇決코一時的속임藥은아니오니 아모리괴로운천식의 發作도 「스페로인」의 一服으로아조쉽게나어서나즈는것이됩니다
◇완고한기침이 드치고 단이아니나와서咽喉가爽快하되며呼吸이잘되며 身體에 爽快한 感覺을주어서氣分이非常히조하지며心臟이 편하고 安眠이잘됩니다
◇이와가티 有効하나모르히네나 아드레나린其他의注射劑와 問題가 안임으로 아모리連續하야 服用하야도 人體에絕對로害가업서 念慮될 것이업습니다
◇繼續服用하야두면 喘息의發作이 적어지어드되여 喘息이나지안토록튼튼한體質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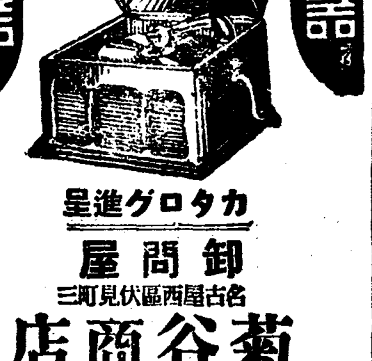
「스페로인」實驗者는效力의偉大함에놀라서 『참으로在射以上이라고』올며깃버합니다。어떠한喘息에든지效力이참으로的確합니다。 무엇을服用하든지無効하야、천식으로죽기까지낫지안는다고悲觀하고잇든사람이나 注射로自己의生命을短縮시키는사람에게一大福音입니다。迷惑치마시고곳實驗하십시요。詳細한說明書는藥에添附

당장에 숨이끄칠듯한괴로운
천식
놀나운新創見劑 완고한기침
「スペロイン」(스페로인)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注射以上의頓服藥

海狗腎
帝大病院官營
新品到着
老少를勿論하시고陽氣업서 悅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 補精背氣强壯에 神奇神秘한天惠的靈効를가진 樺太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 到着하얏슴니다
明治四十四年 日、英、米、露四個國의 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元素! 堂堂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를두고하는말
服用을要하시는분은內容說明書를請求하시요
朝鮮釜山府草梁町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電光一二五九

レコード 蓄音器 樂器



タカグロタ進呈
卸問屋 名古屋西區伏見町三
菊谷商店
電話本局三四五四番
振替名古屋一三五八一番

平壤崇專外二校에 注目되는 重大協議

清州에서열린宣教會中央委員會에서

啓星、信明兩校도同一俎上에

長老會系 六個學校 存廢岐路에!

기취가 념려되든중 얼마전에는 전남광주(光州)스피아녀학교를 비롯하야 전남일대의 십칠개학교를 폐교한다는 발표가 잇서 세상을 놀래게한바 잇섯거니와 그러타면 그여의 동장로회선교부 경영학교는 어떠케될것이냐 하는것이 주목되든차에 먼저달 이십팔일 충북청주(清州)에서열리엇든 동선교회 중앙위원회에서 토의 되엿다는바를 듯건대

장로회선교부에서 경영하여오든 교육사업의본거인 평양의숭실전문(崇實專門) 숭실중학교(崇實中學) 숭의녀중학교(崇義女中學)등 세학교의 존폐문제에관하야 중대한 최후적협의를 하엿다하며 다시오일에는 대구(大邱)의 계성중학교(啓星中學) 신명녀중학(信明女中學)의두학교의 금후문제에관한 선교회 대구지방회가 열리엇다고한다 삼사십년을두고

교육사업의 지반을개척하야 만흔조선인자녀의 새힘문을 길러내이든긔관이 이제일부문을 닷게되고 다시남어지에대해서 존폐문제가 비등케되엿다는것은 긔왕의력사로보아도 애석한일이거니와 현재와 도장래에잇서서우리자녀의교육을위하야 실로중대한문제로 전조선적주목을 끌고잇다

數次會合의結論 總退却으로決定

後繼問題에許多한苦衷

긔독교장로회(長老會)선교부에서 경영하여오든 학교를 금후계속하야 경영하느냐 또는 폐교하느냐하는 문제는 선교문제와 관련하야 미묘한가운데 그

듯건대 동선교회의태도로보면 이왕조선의 선교를위하야 상당한시일을두고 허다한 금력과노력을다하야 만들어노은 긔관이라 될수잇는대로 긔관의유지와 륭성을위하여서는 될수잇는데까지 힘써보려든 모양이다 문제가미묘하게되자 선교회에서는 미국동지의 선교본부와 루루협의를 거듭하며 조선에서는 지난녀름동안 지리산(智異山) 원산(元山)등지에서 루루히 중앙회합을열엇고 또각지방에서는 지방의원 회를 루루히열고 교육사업의 금후문제를 토의하여왓는데 결국은

선교회에서 경영하든 학교는 일단중지하기로하자는의견이 거의대세를 결정케되엿다 그리고 경영을 그만둔다면 어떠한방법으로 금후문제를처리하느냐하는데 대해서

一、선교회의손으로 모두 폐교할것이냐

一、후계자로 유지의 손에 넘길가 다될것이냐

一、그러타면 선교회로서는 학교후계자에대하야 학교재산등을 어떠한정도로처리 또는 인계식힐것이냐

하는문제가 남은문제로 토의되여왓든모양이다 이에대하야 선교회로서는

학교는 될수잇는대로 살리어 계속케한다는것이조타 물론 적당한 후계자에게는 될수잇는대로 조흔방법의 원조도하는것이올타

는것은 사업본래의 주지에 의하야 당연한 의견으로 낙착을 보게되엿스나 실제의 문제로 볼때에는 현재 문제의 선교회경영의 학교재산이라는것은 어느학교를 물론하고 경영에 년년할만큼 잇는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선교회의 재산을 빌려쓰거나 선교회재산수입의 원조를 바다왓거나 또는 미국등지 선교회본부의 직접보조를바더왓거나 하엿든것이다 그런 관계가 잇서서 이제 학교를 적당한후계자에게 넘긴다 하여도 학교경영에 류용하여오든 선교회의 재산을 일부분이라도 떼여서줄것이냐하는것이 벌서상호간 한문제가되여왓든모양이다 그동안 각지방에서도 유지들은학교 존폐문제를 중대시하야 후계문제를연구하여온바도 만흔모양이나 아직은 적당한후계자로 나서는사람도 그러케는 모양이고 인계를 교섭하여도 학교경영이나 간판만을 넘기기도어려워 어떠한교회로서는 여러가지로 주저하여 오든중 다시지방별로협의를 거듭하다가 최근에 명춘신학기를 압두고 부득이 최후결정을 하게된모양이다

本部委員을 明春再派遣

大方針은既往決定?

선교회경영의학교를 경영하느냐마느냐하는문제는크게잡고말하면선교사업을 대축소하는의미를 가지는점으로도 중대하고 금후 선교사업에대하야도 크게관계되는바 이어서 미국잇는선교본부에서도 극히문제를 중대시하고 저간조선잇는선교회와 긴밀한관

랑을하는외에 지난가을에는 미국으로부터 「프린스톤」대학신화부학장으로잇는 「스티븐슨」박사를파견하야 최후모든처리까지할수잇슬만큼 훈령을발하엿든모양이다 그리하여 동박사는 평양경성등지의사정을 여러가지로 조사하고협의 하엿스나 현지의사정

을조사연구해 자격자선이 어려가지처리에 지장을주어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려운점을 감하고 본부와 외권만을전담하고 돌아가서 본부의처리를 기다리게된것에한하야 지명을 내리고를 아가장모양이다 그러나본제는 금속히 처단하여야할것이어서 그간에도 본부지령에의하야 계속협의를 하는모양인데 그내용에 대해서는 이미결정된문제도불표를보류하고잇서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어느시긔를기다려 결정된내용이 발표될모양이다 그런데 아직락착되지안흔곳의 문제라해도 명춘의학생모집에관한것이 잇는만큼얼마이나 어떠한중에가면 모든문제가 전반적으로 나타날모양이며 도달문제에대하야 결정하여야할여러가지문제가잇서 선교회본부에서는 오는 삼월경에 다시본부위원으로 중요인물이 조선에파견될터이라는데 대방침은벌서결정되지 오랜터이라한다 (사진은 숭전교사)

贈答品交換—

民間에서먹업시盛行하는虛禮

社會課에서各官廳에廢止通文

積弊!

총독부 사회교육과에서는 생활개선운동의 하나로 년말 년시와 중원(中元)의 증답품(贈答品)페지에대하야 변말실행케하기위하야 일간전조선각관공청에다가 이것에 관한 격문(檄文)을 발송하게되엇다한다 증답품은 민간측에서 서로만히 성행되는데 민간으로 부터 관리측에 증답품을 보내는 폐풍은 조선에는 더욱 심한비가 잇슴으로 민간의 이러한폐풍을 업새고저하려면 먼저관리들자신이 중답품을 절대받지 안키로 려행할필요가잇다하야 총독부에서 감독관청으로서 각소속관공청에 명령으로 중점을 할것은 물론이지만 이와동시에 사회교육과에서는 사회교화의 일단으로 이것을 관리전부에게 격(檄)하야 생활개선을 부르짓게되엇것이라한다

長淵、安岳에大雪

交通杜絶、遞送故障

【長淵支局發電】 사일부터 나리기시작한눈은 아직계속하야 두자이상이나쌓여 각지의교통통신이 두절되여 지금형편으로는 이삼일뒤에도 개통될희망이업스며우편배달도 특히일부를어텨 체송하는중이다

【安岳支局特電】 사흔날오전부터 내리기시작한 눈은 사일정오까지 계속중이며 벌서두자에달하야 장연까지가는 자동차는 불통이다

天氣豫報

概況 七七〇粍의 高氣壓은 北中國으로퍼지고 거기로부터 氣壓은朝鮮을지나서 日本內地方面으로 약하지고잇스며 樺太地方에는 小低氣壓이잇다 滿洲는晴 朝鮮은西岸이호리고 外地方에잇서서는 小雪이잇고其外地方은 日氣가조코 北西風이불고잇스며 氣溫은 昨日아침부터는 一、二度를내리고잇다 臺灣及琉球諸島는 비바람이심할것이며 裏日本內地는호리고 地方에따라서는 雨또는雪이잇다 其外가조타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日氣가조코며 明日도갓다 京畿全區도갓다 京畿沿海部는 오늘밤北西風이 强할模樣이며내일아침에는 약해진것이다 京畿沿海部에 昨日特報한것은全部解消되엿다

昨日最高		〇度九
同 最低		零下七度三
今朝最低		零下七度六
今日正午	同	四度

私立學校改革案內容

敎員은嚴選主義 財政은嚴重히監督

軍事敎練도漸次實施

총독부에서는 사립학교의 개혁에대하야 협안중이엇는데 이것을 일전에열리엇든 각도학무과장과 시학관회의에서 자문안(諮問案)으로 제안하엿든바 드디어 결정을보앗다한다 학무국에서 사립학교의 내용쇄신을도모하게되것은 교유정책을 보통교육중심주의로부터 실업교육중심주의로 또지육(智育)편중경향으로부터 덕육(德育)과 체육(體育)의 삼자병행주의로 전환하게되는개상 사립학교의 교육내용을 쇄신향상식히기 위하야 학교재단의 감독등에관한 학교경리상의문제와 교원의소질향상책을 강구하야 사립학교에대한지도와 취체를 강화하려는것이라 한다

이것의 구체적방침으로는 현행사립학교규측을 개정하야 유자격교원의채용에잇서서 인물의엄선을려행하며 도지방비로써 약간의보조를 널리지급하는일방 학교재단의충실을 도모하기위하야 재단의관리와 경리에대하야 상당히 엄중한감독을단행한다 즉 학교의설비를 충실케하며 교원의대우를개선하야 우수한교원을 채용하는것은 따라서 교유내용의향상을 도모하게되는것임으로 학무국에서는 학교의재정감독을 엄중히하야써 설비의확충과 교장이하교원의소질향상을 도모케한다는것이다

또군사교련실시에 대하야는 사립학교의 희망도잇스며 상급학교와의 련락상으로 실시함이필요함으로 방금학무국에서 군부와협의중인데 명년부터 점차학교씩 실시를하야장래에는 전부실시를할것은 물론이요 교육내용의 쇄신향상으로는 시학관과 시학위원의 출장감찰 재래보다 자조하야감독을려행할터이라한다

各道에視學增員

私校監督强化策으로

총독부에서는 명년도에 중요강원 확충의세도에 시학관을두게되엿스며 도각도에는 시학을 전부도명씩 중원하기로 예산을 요구하엿든바 결정되엿다한다 이로써 시학관은 각도에 한명씩 전부배치되는세이고 도지학을 중원하게되는것은 사립학교의감독을 강화하기위하야 각도에 사립학교전담시학한명을 특치하게되는것인데 명년제이차초등교육의 확충계획착수와 금년에마치는 제일차초등학교의 중설로 자연히 시학을 중원할필요가 생긴것이라한다

同僚賃金을 橫領코逃亡

충북청주군강외면공평리 (淸州郡江外面) 품파리군의 삭전을 횡령하야가지고 서울로도망온자——충북청주군강외면공평리 최조갑(崔朝甲)(三〇)은 지목 일파당의 방(日光堂藥房)에외

아버지찻는딸

사일밤 초설이내린 종로거리를 주림과 추위에시달리며 정처업시 헤매고잇는 십칠세의처녀한명을 종로서원이발견하고 그연유를물어본즉 그는중남서산군은평면(瑞山郡恩坪面)사는 황소저(黃小姐)(一七)라는 처녀로서그의 아버지가 서울잇다는 소문을듯고 얼마전에그리운 아버지를차저서 상경하야 시내관철정 광동(廣東)려관에 묵고잇섯스나 찻는아버지의 거처는 알수가업고 가지고온 로비는 다떠러저 오도가도못하고 거리를헤매던것으로 종로서보안계에서는 방금 이를보호중이다

煙草小賣許可의 運動費專門詐取犯

前看手로惡行하다가또잡혀

형무소간수로잇다가 독직죄로면직당한자가 이번에는 연초소매를희망하는사람들에게 운동비를 사취하고 겸하야 당당히전매국관인찍힌 허가서를 발행한대담무쌍한 최신식 지능범(智能犯)하나이동대문서에 검거되엿다——시내도염정(道染町)사백칠십일번지의이호 류광현(劉光鉉)(三七)(一名劉日圭)은 소화룩년경까지도 경성형무소간수로 잇다가 자 서대문형무소간수로 잇다가 소화팔년도직죄(瀆職罪)로 팔개월의형을밧고 나온 ——래 부랑생활을하다가 얼마전에 종로사정목 일광당약방(日光堂藥房)에외교원으로들어가 시내각처로 도라다니며 매약외교를하는동안에 연초소매를 함께한다면 약을팔겟다는사람이 만흔것을 안——는 전매국모과장에 자긔의친구가잇다고하야 그운동비로 수송정(壽松町)백삼십륙번지의일호 백광흠(白光欽)으로부터 두차례에 구십칠원을 사취한것을 비롯하야 혜화정(惠化町)칠십번지 량을남(梁乙男)에게서칠십오원 신당정(新堂町)二십팔번지 김상우(金相雨)로부터시십원을 사취하고 지난달이십사일에는 창신정(昌信町)칠십구번지의이호김보배(金寶貝)라는 녀자로부터 현금사십원을 륙십전과 삼월(三越)상품권이십원을 흥쳐가지고그이튼날 금강산 려행을떠나 그곳부지화려관(不知火旅館)에류숙하면서기생신여영을 데리고호유를 하는것을 상십일에 전긔정보(電話情報)로 고흥반든 동대문서의 의뢰로그곳 경찰에서 체포하야 사일밤 동대문서로 압송하야 온것으로그는 전에서는 지금 엄중취조중이며 그는전긔 피해자들에게 배정하게 전매판거를 엄중하게 ——연초소매허가증지서(煙草小賣許可通知書)를 발행한것도 발각되엿슴으로 관인위조문서위조에도 해당하는것이라고한다

매맛난銀盤우 젊은이의饗宴

벌서郊外에는스케—트·シ—즌

스케이트팬들대망의 치위는왓다 첫치위가 들면서부터 닥고손잘본거울 어룽이 녹으면서 집하기시작하야 오늘 내일어룽다 그대로 밀처두엇든 스케이트를 이업기만 기다리든 그들은 업시기가 발버리고 첫겨울양광(陽光)에 눈이부시게 번적이는 은반(銀盤)우호로 힘찬자욱을 남기며 젊은이들의 스포츠향연(饗宴)은 벌러지고잇다 런일을두고수은주는 령정아래로 왓다갓다하터니 오일새벽은 령하칠도오분!어름장도이만하면족하다!청량리예과(豫科)링크우에는하키스틱을 손에잡은 학생들의 룰룽한 자세가겨울천국을 즐겁게 맛고잇다 (사진은 청량리 대학예과링크)

◎조선사람에게맛는 보약은무엇인가!

보혈강장하는것은 사람의 제일 중요한 … 한국가의 국정에도 하나 세계사에 … 그러한나는 몸이 산도 우리 조선 사람에게는 우리 조선사람에게 맛는것이 … 조선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뭇 가 … 인삼과녹용 밧게업는것입니다 … 가장합리적으로배합하엿 … 삼용정(蔘茸精)밧게업습니다 …

인삼과녹용 밧게업는것입니다 신통씨의 유명도지시황제의 불로장생의 비법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겟습니까 … 가장합리적으로배합하엿습니다 그외에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유긔철분강장제까지 배합하여만든약은 경성부수은정삼십번지조선상회(京城府授恩町三十二番地朝鮮商會)에서 발매하는 삼용정(蔘茸精)밧게업습니다 과연이약의 진가를아려주는 이야말로 백배이무섭지안코 삼천간자동방식 어가부럽지안을것입니다 또 한아삼용정은 물약 인고로 다른환약과가리제하는 열이업서서 어떠한중의환자라도 능히복용할수가잇고 환약보다효력도속한것입니다 그런고로 모든점으로 보아 이처럼 합리적이고 또우리조선사람에게는 보약은다시업슬것인

「금은겨울!」 겨울에체온이 가을철에 복되여론 원기도 다시쇠약하기 쉬우며 배약한 사람은 병에 더욱감하기 쉬운 이때입니다 … 세로번민하는 여러분! 우저말고 삼용정의힘을 빌어건전한 육체의 소유자가되십시다

이런증세잇는분은 하로밧비삼용정을 쓰시요

겨울을이기지못하고 식욕감퇴 食慾이減退한이 폐결핵초기 肺結核初期 그이과 고통 期나二期로 苦痛하는이 양기부족 陽氣不足으로 靑靑한 老人이 위장병 胃腸病으로 因하야 빈혈증 貧血症으로 항상 恒常苦悶하는이 창백 蒼白하야 얼골이 蒼白하고 수족이냉 手足이冷하고 신경쇠약 神經衰弱 불면증 不眠症으로 고생 苦生하는이 산전산후 産前이나産後에허약한이 아동발육 兒의發育이不全한데等

하나님의사람

세상 사람들을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야 구별할이유가잇을까 사람은 세상에 올때에도 가지고 온것이 업고 세상에서 떠날때에도 가지고 갈것이 업는것이다 그러커마는 세상 사람들이 먹을것과 입을것이 잇는것으로 족하게 녀기지 안코 탐심으로 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어려석고 해로운 정욕을 방종하야 하다가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것이다 그러하야 『돈을 탐함이 一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미혹하야…만흔 고로움으로써 자긔를 찔럿다』한것이다

돈으로 인하야 이러케 큰 해독을 밧는것이 무슨 이유일까 그러케 악한 것이오 부하려는것이 그러케 악한 일이어서 그러한가 아니라 다만 돈을 벌려는것이야 사람의 본분이겟지만 그것을 벌되 탐하는 마음으로 불의와 죄악된 수단을 써서 남의 행복을 불고 도로허 해롭게하다가 자기를 찔너 멸망케 되는것이다 그런즉 목적이 조타고 방침은 아모런것이라도 괜찬은것이 아니다 그러치 못하면 목적이 흰튼 그목적을 달하는 방침까지 조케해야지 그렁치 못하면 목적이 그런즉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하여야 할가 그런 흉의와 죄악을 피하고 의와 경건함을 조차서 영원한 생명을 취할것이다 이영원한 영생은 만물을 살게하시는 하나님과 죽은자를 살니기 위하야 친히 죽으셧다가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잇는것이다 그런즉 『그 『예수』가 잇는자(밋는자)에게는 영생이 잇고 『예수』가 업는자(밋지안는자)에게는 영생도 업는것이다 그러하야 세상 보통 사람들은 배도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패망을 향하야 다름질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바라보고 나가는것이다

好職業

男女年齡不問自宅執務業〇動人事生輻 〇多利(?)業休〇照會見本進呈 大阪航空生駒停留場前 博文社

贈答品에는 · 明治の菓子

開運의好機는只今!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名觀相家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觀相學의大家로서 만흔 士들의相談에應하야 大好評을밧고잇습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惱하는분、適業을擇하랴는분、人事萬端에關하야 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의和合을願하는분、株式、期米、鑛山等의 投資、其他、利益을엇고저하는분、訴訟의勝敗等을알고저하는분、身上의吉凶、開運方法等 어떠한問題를 不問하고 聖龍先生은 明快하게判斷하야드림니다

【성룡선생】

◇부귀길흉을알고저하는이는 來訪 또는 ◇지방에서는 生年月日을 記入하야 相談料을 送付하시요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南大門과 大漢門의中間)

◇地方에게신분은성명과 생년월일시를써서 보내시면 판단해드림니다 (사진이잇스면더욱명확함)

京城相學院

宅地와住宅

向陽佳麗、交通便宜한宅地는 衛生實用經濟 具備한住宅은

向陽社

土産布木都賣部附設

京城府嘉會町三二一番地ノ三

舊住所 京城府樂園町三百番地

電話 光化門 一二一九番 振替口座京城 一〇九五七

京城鍾路パコダ公園正門越便 醫學博士 金東益內科

電 光 二七五三 (夜 中 黎 明)

獨修 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講義한英語獨習書 (?)

朝鮮文으로된世界唯一의解說書 (內容見本誌代規定無料進呈郵券二錢封入)

京城府樂園町五五 英語通信硏究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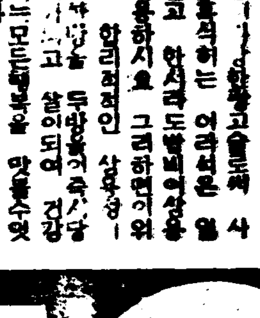
東洋貿易商會

營業科目

米 雜 麥 砂 肥 鹿 海 産 穀 雜 料 糖 粉 貨 袋 物

代表者 島崎 千里

支配人 荻野龍四郎



本店 仁川府本町二丁目 電話長距離六一六番 一八一番

販賣部 仁川府新町二〇五 電話九三五番

蔘茸精

高速度補血 强壯劑 不老長生之秘方藥

朝鮮日報 釜山支局

貸座敷 電話一三九五 優美 ...

뉴—스 (朝鮮日報社會部)

로지 타

桃花劇場

十二月五日부터三日間

朝鮮日報釜山支局後援

엔노켄の どんぐり頓兵衛

怪奇劇 妖鬼잉야 全八卷

羅馬太平記

丹下左膳

桃花劇場 電話 三二三番

ライオン齒磨
라 이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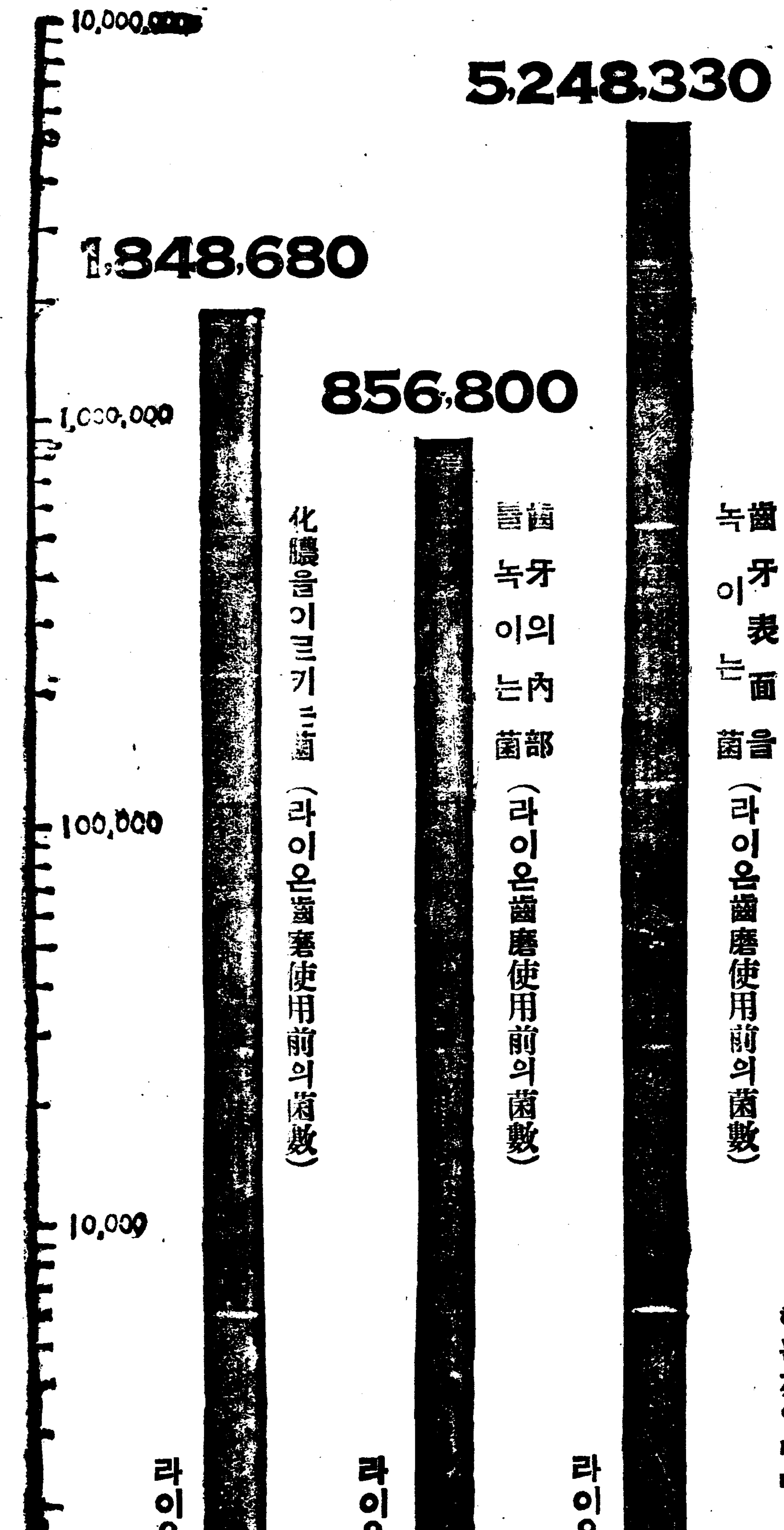
數字가보이는이淸掃力!

注目하십시오
嚴然한이事實을!

라이온齒磨를使用하기不過
三十秒로서의이効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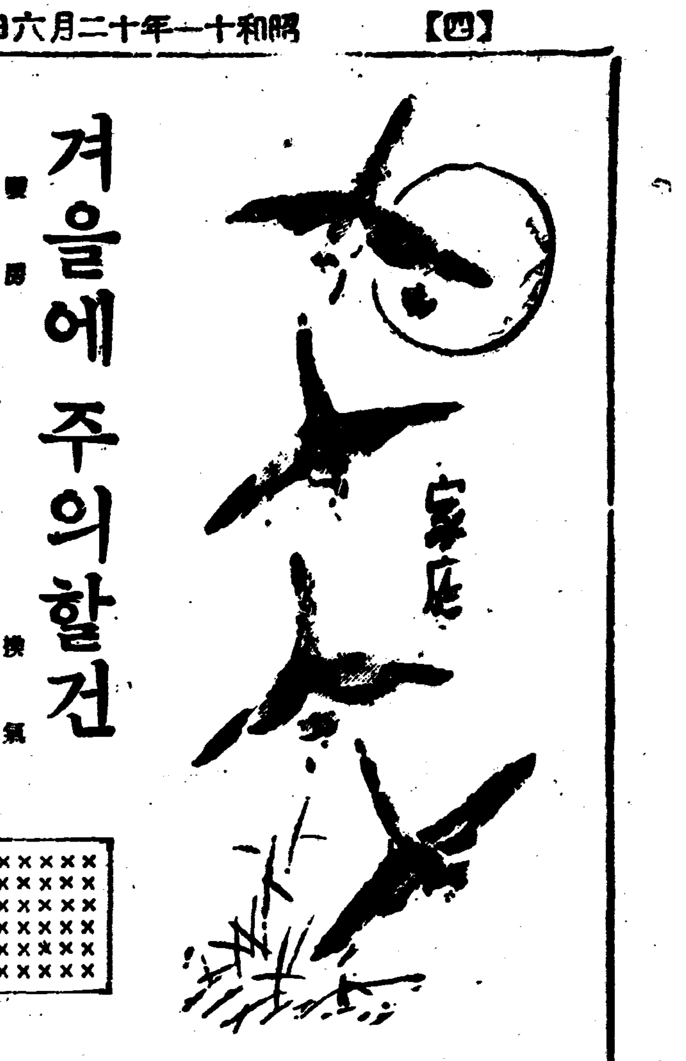
어에보이는圖表는、我社研究室에서研究部員이顧問諸博士와가티、嚴密한研究를다한研究임니다。

이를보아서도、如何히라이온齒磨가口中의微生物을거이 完全히吸着解毒하는가 가證明되지안습니까。



追而 左記數字는이것을要約하면라이온齒磨의使用에依하야齒牙脫灰菌(齒牙의表正即法瑯質을녹이는菌)은約六萬分之一로齒牙溶解菌(齒牙의內部即象牙質을녹이는菌)은約一萬分之一로黃金色葡萄狀球菌(化膿을이크키는菌)은約四萬分之一로各各激減하는것을表示하는것입니다。

ライオン齒磨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家庭

겨울에 주의할건 난방(煖房)보다도 환긔(換氣)

◇……공긔전염의 병균을 주의하자 너무 간조해도 못쓸것

겨울이되면 감긔가 잘 듭니다。해마다 감긔가 원인되야서 죽는사람도 상당히만습니다。본래에 공긔를 딸아 호흡긔관으로 들어가는 전염병균은 겨울철에 몹시퍼지고잇스니 성홍렬、지푸데리、홍역、백일해가튼것이 모다 그러합니다。그것은 왜 그러케되는고하면 방문을 꼭다더노하서 부정하야진 공긔를서로들 마시고잇는 까닭일것입니다。겨울에는 어떠케 방을뜨듯하게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케 방안ㅅ공긔를 잘환긔시킬까하는것이 문제입니다。무어니 무어니하야도 겨울위생의 첫조건은 환긔에잇다는것을 알어야합니다。

바깟공긔는 원측으로 보아서 방안ㅅ공긔보담 깨끗하다고 볼수 잇습니다。방문을 열어 제치어서 깨끗한 공긔를 끌어 드리기만 한다면 아모 말썽이 업습니다。그러나 춥다고 잔뜩 문을 닫고서는 불을 피워 노흐니 산소는 희박해지고 탄산까쓰는 증가될 것이 아닙니까? 병자나 잇다면 기침이나 재채기에 딸아서 병균이 쏘다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여름철 가튼 때는 방문을 열어 두니까 자연히 바깟공긔와 방안ㅅ공긔가 바뀌겟지만은 겨울은 그 공긔가 방문을 다더 노흔 그대로 두고 두고 갑니다。병자가 잇거업건 못된 병균이 번식하기도 쉬웁거니와 호흡긔관에도 조흘리가 업습니다。우리네도 이제부터는 집을 지을 때는 환긔장치(換氣裝置)를 해 놋는 것이 조습니다。환긔장치가 업거든 하로에 몃번이고 문을 활짝 열어서 공긔를 바꾸어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

숫불에서는 일산화탄소(一酸化炭素)라는 것이 나옵니다。또 담배연긔에서도 그런 것이 나온답니다。일산화탄소란 아조 독한것으로 일시에 심하야서는 죽기까지 하고 조금씩이라고 두고두고 마터서는 히스테리가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우리네 좁은 방에서 숫불을 벌거케 피워 놋는 다 담배들을 뻑뻑대다하야 노코도 환긔를 잘하지 안하니 그 해가 불소할 것은 사실입니다。그러타고 다 배들만 피거나 숫불을 안쓸수야 잇습니까? 환긔나 좀 정신차리어 하시더라도 조치를 안켓습니까?

×

겨울ㅅ방에는 또 한가지의 문제가 잇스니 즉 습긔입니다。원낙 습긔가 부족한 겨울공긔에다가 방을 뜨겁게 해 노흐면 습긔는 점점더 업서집니다。영국이나 독일가튼데는 [illegible]겨울일사록 습긔가 만흐니까 방안의 온도가 노흔것이 도리어 적당 합니다만 조선가튼데는 그러치 못합니다。물주전자를 끄리거나 물수건을 걸어서 방안에 습긔가 좀 생기도록 하지안허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학

「살무사」에 대하야

問 살무사가 보신이된다 하오니 의학상으로 사실그런지요 자세히 가리처주시기 바랍니다
(咸北李生)

答 「살무사」가 보신 된다는 의학상학설적은 업습니다 그러나 민간으로 만히 전하여 복용하는것 갓습니다 효험을보앗다고하는 말도드럿습니다 그러나 보신된정도가 어느정도나되엿든지 나는 모르겟습니다 영양적으로보면 지방질이 만흔거신고로 그지방질로써 보신이되는 거스로 생각되옵니다 딴성분이 잇서서 특효가잇는거스로는 생각할수업습니다
(醫專病院長 朴東來)

두통으로고생

問 금년이십세남자인데 수십일전부터 두통이나며 골이띵한것가티무겁습니다 거름을 거를때 또는 기침할때에는 더간조롭니다 의사에게 진찰을받엇더니 신경쇠약이라고하면서 산나도리옹이란약으로 주사하고 또내복을 하라기로 그리하얏더니 조금차도는 잇스나 두통은 여전합니다 흑자는 포도주나 빠르토-제를 복약하라합니다 가정치료상 무슨약이 조홀까요 지금은 빠르토-제를 복약중이오며 식사시에는 두통이업습니다
(黃村苦痛生)

答 신경쇠약으로온 두통이라하오니 루미나-르○、一을 부삼하여복용하야보시요 또는 아스피린 기나네등도 효과가잇슬거십니다 보제로는 어떠한거시던지조흘거십니다
(醫專病院長 朴東來)

신경질시초

問 금년십륙세소년남자입니다 작년가을부터 정신이상이생기엿습니다 중세를말하오면 머리가 흐리고 고민하는공상 흑은책을 읽다가도 미칠듯한생각이납니다 이런거시신경쇠약인가요 가정치료법을가리처주시기바랍니다
(市內苦悶生)

答 신경질인것갓습니다 번뇌되는생각을피하고 당신에현재하고잇는일을열심으로 할것이며 취침과기상을일정하게하면 약을복용치안터라도 나흘수잇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복약하라면 아르센뿌르토-제를복용하야보시요 따로특별한내복약을 사용할필요는업슬것갓습니다
(醫專病院長 朴東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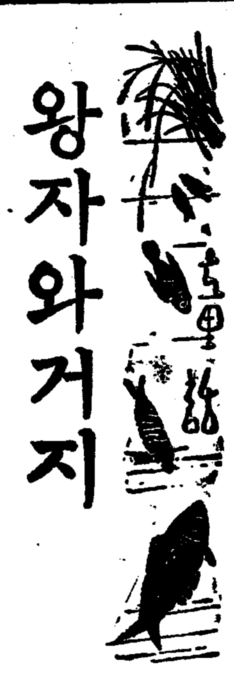
토픽

세상과절연한로파

「오-스트라리아」의 「갈프스론」시에 살고잇는「레-데이론」이라는로파는 금년나히가 팔십인데 그로파는 한가지 자랑거리를가지고잇다고 사람을 대하면 이야기한답니다 다른것이아니라팔십살을먹도록아즉 집웅밋을떠나서문간게나가본일이 업다는것입니다 그녀자가 살고잇는집은그의아버지때에 지은집으로 그집을짓자 그녀자가낫답니다 그리하야 팔십년전엔 그집이숩속에 잇는외ㅅ딴집으로 어려서부터놀러다닐이웃이업섯스므로 자연히 집안에 드러잇게되엿다가 나종에는범서그녀자의나히가륙십이 드러섯슬때 그집주위에집이만히 드러서며 어서외출할필요가 업게되엿드랍니다팔십평생을 집밧게나가본일이업슴으로 자연세상의 풍부한것을 피하게되여서 오래산다고 합니다

왕자와거지 (31)

마-크·토웬 作 崔秉和 譯



로인은 깜짝놀라서 칼을 떠러트리드니 얼른 소년의몸을 양의 가죽으로 덥허노코는 벌벌떨면서 일어낫습니다。사람의음성은 점점가까워지더니 별안간성난목소리 때리는소리 사람살려달라는 소리가、들리드니 『뿌!』하고 도망가는 발소리가낫습니다。그러드니 이번에는 문을두들기는소리

「문열어라 문열어라」하는 소리가낫습니다。그음성이야 말로 국왕이꿈에도잇지아니한 그리운목소리엿습니다。다른 누구이겟습니까? 마일스·헨돈의음성이엿습니다。

로인은입맛을쩍쩍다시면서 얼른문을다치잡것습니다。

그러니깐 밧게서

「로인여봅쇼、소년은어디잇습니까? 내아들은?」

「어떤아이말이냐?」

「저를속히시지는못합니다。이근처에서 소년을훔친의학한 놈들을붓잡어서 그애 이집으로도망해드러간것을 잘알고잇습니다。그애는 대체어느곳에잇습니까?」

「아!알엇다。네가말하는아이는 어제밤여기서잔 남루한옷을입은거지애가안이냐? 그애는 심부름을보내는대얼마안잇스면도라올것이다。」

「뭐 심부름을보냇서、홍또거짓말을하는구나。그애는심부름갈리가업다、그런무례한말을하게되면 그애는 너의힌수염을 뽑아버릴것이다。그애는 어떤사람의심부름이든지 갈리치기업다」

「어떤사람의?…흥 그럴는지도모르겟다。그러나 나는 사람이아니다」

「뭐? 그러면 너는대체뭐란말이냐?」

「그것은비밀이다。다른사람에게 말해서는안된다。나는 대천사다。」

마일스·헨돈은 껄껄웃스면서

「홍、따는 대천사니깐 귀족이든지 국왕이든지 명령을할것이다。──그런데저게 무슨소리냐?」

두사람이 이약이하는동안에 방에잇는국왕은 무서움에 벌벌떨고 기쁨에 가슴이울렁거리면서 잇는소리를 다하서 어떠케해서든지 헨돈에게알어듯도록 힘써밧스나 그때마다 물거품으로도라가고말엇습니다。그러자 지금헨돈의말소리를듯고는 기운이나서 더한층 큰소리를 질럿습니다。노인은 그소리를 감출라고 큰소리로

「소리가난다고 나에게는바람소리밧게 들리지안는데」

「바람? 아마바람소리인가보다──옹또들린다。바람이안이다。이상스런소리다。자 깨알어보자」

국왕의 기뿜은여간안이엿습니다。죽을힘을다하야 소리를질럿지만 원채입을꽉막고 그위에 양의가죽이 덥허잇서서 큰소리를 질를는재조가 업섯습니다。그러니까로인은

「옹、저소리말이냐 저소리는밧게서 들리는소리다。저쪽에서 나무를비는소리다。내가안내해주마」하는소리를 듯고는 국왕은 고마람심이 되여버리엿습니다。헨돈은로인과함께 이야기하면서 바그로나가는듯하더니 알러기척도나지안헛습니다。

우리차지

"달그림자"

달님이 단장을
하려고 강까에
나왓습니다。
강물을 거울삼아
얼골을 비추어
보랴는데
바람이 부러 물이
자꾸 흐려집니다。
(글ㅅ사람 유형주)

유-모어小說 姓女씨 (三)

金熊超 作·畵

晩學一年生 (5)

생명에는 별반이상이 미치지 안켓지만 두부와안면 수개소에 타박상은면치못할것이고、또 월부가꿋도안난「미쓰소로이가」령떠시될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타고 지존한어른에게「정당방위」의 행위를취할수도업는일이엇습니다。

──현명한 자식놈은 젝이는게 수다!

몽백군의 온정신에떠진운동신경이 일시시에 기민한활동을개시햇습니다 위기일발!오른지입초동안에 몸을 살짝 여프로피하자 정면으로 포탄괴가티드러온 영감님은 장판바닥에 철석소리를내여 어푸러지고 마럿습니다。

──절호의한수!

몽백군은 고무공 튀어오르듯 벌떠이러나서 심야의 초롱-그록메드칼프는방불하게 마당으로 뛰어형네집을 하직햇습니다

집에 도라온 몽백군은 그때까지도 얼골이상기되어 얼골이 화확다랏습니다。

「아니、웬일이요?」

성녀씨도 덩따라 긴장해서날뛰엇습니다。

「…모자는 어떠케햇수?」

「모자?…하!이런일봣나!모자를 버리고 왓군그래」

몹시 당황햇든것을 이제야깨다랏습니다。긴장끄테오는 피로몽백군은 양복을 버서 팽겨치고 조선바지를 뒤집어입다시피하고 맥업시 드러누엇습니다。

성녀씨는 버서노흔양복을 못에걸령으로 들고서서 옷이상한데나업나하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살펴봣습니다。

무슨변이 잇섯다는것이 희질히드러난 까닭이엇습니다。

──술먹다가 싸웟나?

맨먼저 이런의증이생겻습니다만 남편에게서 술내새라고는 조곰도 나지안햇습니다。

──그럼 친구하고 다투엇나?

친구하고 다투엇대도 그것좀은 괜찬치만 회사에서 야료를부리고 쪼겨나지 안햇나?

마지막에는 이런 방정마진생각이 나서 눈이 아득아득해지기까지햇습니다。궁금하고、걱정스럽고、애가타기 이를데업지만 남편이 입을봉하고잇는것을 억지로 캐고무를 용기도 나지안헛습니다。

성녀씨는 회로롬에 올려노흔 찌개생각은 이저버리고 어린애다。

「왜 대답이업서」

「틀이 잇구업구가 뭐잇수 밤낫 드러안진사람을……」

「어린애가 문젠데!」

남은 가슴이 조여 못견딜지경인데 남편은 또 딴소리를합니다。

「원지 회 터러내노코 얘기를하시우。볼일이 잇스면 어린애를 업구는 못하나」

「아니야 어린애는 떼노아야할일인데!」

어린애까지 떼란소리를 드르니 아니할말로 자고를 파라먹을것도 가탯습니다。

「글세 무슨일이길래그러우。밥먹기시작한애 좀떼면 어떠우。당신이 봐줄테구……」

「그러치 그래」

「도대체 무슨일이요?」

성녀씨는 참다못해 남편의떠살을잡을드시 밧작 닥어드럿습니다。

「나?」

「학교에 좀다녀볼테야?」

「그래。야학에말이야」

성녀씨는 얼이빠져 조타는둥 언짠다는둥 아모말이업고 아모표정이업섯습니다。

사실 성녀씨는 전에 언젠가 오백원짜리 작바게에드러 어께너머로상식됨라먹을때보다 더정신을 차릴수업섯습니다。

이와비등한 기뿐일이 만약에 정해녀사에게 생겻다면 몽백군은 어찌되겟습니까?

통어든채 오록에가서 우두머니 도라서 잇섯습니다。

──궁상스런 포-즈롱。

「여봐!」

남편의부르는소리가 들렷습니다。

「네!」

하고 도라섯습니다。

「이리와서 안저」

──밥통이 끄너젓스니 어찌사누!

남편의입에서 이런소리가 나올것만가태서 성녀씨는 맥어시남편가까히가서 엉거주춤하니안젓습니다。

「저녁이면 틈이잇겟서?」

예기하지안흔말이 남편의입에서 나왓습니다。

「오늘밤에?」

「아니야 언제든지말이야」

성녀씨는 무어라고 대답해야오를지 어리뻥뻥햇습니다。또 바정스런생각에──버리가 끈허젓스니까 나를 카페가튼데 내세라나! 이런생각이 드럿든겝니

女性 十二月號 特輯號 (發賣中) 定價二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五八七八

一席話(어머니、안해、누이에게)……金炳元
延日池와細鳥娘……車相瓚
朝鮮女流文學의新發見……鷺山
表紙·扉畵·挿畵·安夕影
詩歌 이밤이너무길지안습니까……李夕汀 湖水……吳章煥 無題吟五首……金午男 비오든그날外一篇……白菊喜
떠나간이에게 보내는편지: 보헤미[illegible]는지첫습니다……洪陽明 당신이[illegible]이미十年이외다……李鍾模 맛나지[illegible]업는順伊에게……李秉珏
孫、南兩君結婚觀 一記者
女學校時節의로맨쓰……李應淑外諸氏
設問에對한그들夫婦의對答 一、두분이 [illegible]해서 보내신[illegible]과 선물은 二、혼자서 몰래 보내십푼 三、두분이 서로 주고밧으실 선물은 朴致祐氏夫婦、李[illegible]氏夫婦、金[illegible]氏夫婦、[illegible]氏夫婦、朴[illegible]氏夫婦、劉[illegible]氏夫婦、李孝石諸氏
文人과除夜: 交響樂의밤……李孝石 昨年의日記……李軒求 除夜의勝負……金文輯
女學生의고룻된戀愛……李貞子
哀話 雙舞曲……金惠順
書報 겨울의마음·韓과姬孃 京城女子中等學校花形選手 등파레-드 進明女高及培花女高
送年特輯 膳物……崔富林 歲末主婦常識……安小任 센타크로-쓰모 무엇……나愛羅
내論稿의旅程……金基錫
山居……李源朝
꿈을깨면窓박게눈이왓습니다……白髮生
今年度女流創作總評……白鐵
生月判斷。女性界消息。內外珍聞。例外의珍職業。지마십쇼
美人과社交……洪鍾仁
名士諸氏의結婚當時 尹致昊氏 趙東植氏
우리學校자랑 (同德女高篇)
女性巡禮記 (慶尙道篇) 十三道 李相昊
令孃日記 女教員 金玉禮
送年創作特輯 短篇小說 슬픈이야기 金裕貞 短篇小說 舍 姜鷺鄕 長篇小說 안해(2回) 安夕影 短篇小說 逢別記 李箱
家庭讀本 겨울의婦人衛生……張文卿 主婦여平和의女神이되라……宋今璇 十二月의美容……吳淑根 男子세-타는어떠케짜나……金順喜 利用經濟學……林誕生
性生理學……鄭槿陽
펜의哀歌……毛允淑
겨울밤追憶되는映畵……朴基采
漫文漫畫 歲末家庭風景點描……崔永秀 月給쟁이初年兵……李周洪 女性「아기차지」……林鴻恩

茶故事 (一)

湖岩

茶와 담배는 서로떠나지 못할關係를 가진 物件이다。 이미 담배이야기를햇스니 이로부터 茶이야기를 하려한다。

茶는 담배와가티 一般으로 普及되지 못하고 말엇스나 文獻上으로 본다면 그드려온年代가 담배에 比하야 몃갑절이나 久遠햇고 또生活上에 끼친 그影響도 적지안타면 적지 안타。

茶는 朝鮮固有의 植物이아니오 三國末에 中土로부터 傳來하엿다。

朝鮮에도 山茶(俗稱冬栢)와 甘茶는 업는바 아니나 오늘날 普通所謂茶는 본래 中土의特產으로 이것이 다른 文化와한가지로옛날新羅에 流入하야 栽培하게 되엿것이다。 그當時日本과 오늘날 西洋의 茶種도 모다 中土로부터 傳播된것으로 다만 前者는 新羅보담 數世紀나뒤것고 後者는 新羅보담 八九世紀가 뒤진것이 다룰뿐이다。

後世朝鮮人은 거의茶를 마실줄을 모르나 옛날新羅人은 茶를 相當히 愛好하는風俗이엿다。 그러나 新羅때는 主로 僧侶界를 中心하야 盛行하엿다。 그러드니 高麗때는 僧侶界로부터 민간俗間에 퍼지게 되엇다。 그러치만 高麗때도 오히려 오늘날 담배가치 民衆化함에는 이르지 못하고 흘이 特權階級의 一種嗜好品으로 愛飮하든바다。

茶가 비록 一般人의 常用이 아니나 高麗때 盛行햇든것만은 事實이다。 이를테면 王宮에서 하든年中行事의儀式에는 반드시 酒果와 한가지로 茶를 愛用하엿고 外國使臣迎接의 禮節에는 외려히 參茶와 한가지로 茶를 供待하엿스며 貴人과 富豪사이에 茶를 愛飮하엿스며 茶具를 消費하는風이 자못盛行하야 이것이 高麗磁器發達의 一因을 지엇다한다。

이러케 新羅에 起源된 飮茶의盛行이 高麗에 와서는 일층 더盛行함을 보게 되엇거니와 李朝에 이르러는 衰顏하고 말엇다。 그러면 그衰顏하게된 原因이 어데잇는가하면 佛敎衰頹에 돌리는이도 잇다。

과연그러타 佛敎와關聯이 깁헛든 飮茶의 流風이 佛敎의 衰頹에 따라 衰頹하게된은 또한 自然의 理勢라고 하겟다。

그러나 飮茶의 流風이 佛敎와 [illegible] 茶가 普俗化하지 못한것은 [illegible] 一般民衆化하지 못한것은 그것이 一般民衆化하지 못한것은 [illegible] 飮湯을 마시는 民俗이잇는때문이 아닐가。 甘泉도 甘泉이 흔코。 또흔 朝鮮人에게 飮湯가튼것은 一種藥茶로서 그구수한 風味가 薄茶에 比하야 반드시 苦澁한 [illegible] 讓步할바 아니쯤 이것이 茶의普及에 적지안흔 障碍가되엿슬는지 모른다。

어케든지 茶가 李朝에 衰頹하게 되엿다。 茶가 衰頹하는同時에 茶로써의 [illegible] 생겨나는 茶具等의 高麗자기의 [illegible] 다시 옛날과가티 [illegible] 지못하게 되엇다。

그러나 茶의衰頹와 그衰頹을 [illegible] 하기로한 美術工藝의 [illegible] 함이아니냐。 吾人의 [illegible] 은 차라리 이에서 一步를 떠나 茶그것을 [illegible] 못한데 잇다。

李朝는 말할것도 업지만 茶를 愛飮하든 高麗에서도 [illegible] 의栽培를 [illegible] 가장 適當하게 [illegible] 잇나 [illegible] 만히 栽培하야 [illegible] 大疑問이다。

이런 意味下에서 吾人은 今文獻에 보이는茶에 對하야 한번 考察함이 아주 無意한일은 아닐줄로 밋는다。

批評文學의樹立과그方法 (七)

韓植

새로운批評文學을 樹立하기爲하여서는 우에서 말한것과가티 때때로 훌륭한 批評文學을 끼처준 印象主義批評家「아나ー틀프란스」로부터라도 만히배우며 享受 印象 鑑賞等에對한 새로운設定과 考察이 잇서서야하겟지만은 그는決코나는 眞實한觀察者가안이엿다。 何故요하면

一觀一 察을 明澄함에는 一定한體系를必要로하지만은 나에게는 그런體系가업다」라고 言明한때의「아나톨프란스」의길을 본바들 必要는 업는것이다。 우리들은 오히려 「산트·부ー브」로부터 「루메틀」「프란스」에의 길이안이고 「부류티엘」「헤ー느」에의길에서 새로운批評文學의展望을 하여야할것이다。 如何히 藝術的感受性이 豊富하다할지라도 個性으로부터 論理的思考性을빼여버리고 主觀으로부터 積極的意識을업새이고 判斷을趣味속에서 沒却하고 따라서 社會的有機的體內에서의 批評的構成을遺失한 다만 無性格한小我의 偏執으로써 享受가안이고 享樂이고 感動이안이고感傷으로와이것이 되여서는 안될것이다。 藝術的趣味라하여도 追求하여보면 結局無意識의 判斷의過程을 表示함에는 틀림업스며 『나는어떤 判斷도 하지안는다。 나는단지 感得한것을 말할뿐이다』라고한 〃루메틀〃의 말도、 詮索하면 結局 그가 屬하는 生活的 根據、 體驗、 現實的心理 其他의 여러가지 物質的條件에서 超越하지못함은 勿論이며、 나아가서

一暗一 默裡에 어合한 自己의趣味 評價를 하고 잇는 것이다。 그리하여서는 結局 〃프리체〃가 批判한것과 가티 『羅列한追憶、생각나는대로 印象的關係를 羅列한 日記、主題는 大槪 貧弱하다』라는 것밧게 못될것이다。 우리가 이제로부터 樹立하지안흐면 안될 批評文學은 그러한 軟化한 隨筆文學이 되여서는 안될것이다。 이와가튼 잘못된 一圖 이때까지의、 어떠한意味의 批評에對한 反撥이며 또 다른 反面에 잇서서 [illegible] 感性에、 [illegible] 한批評 [illegible] 그와 反對다、

批評이 作家의 에피고ー넨의附隨的事業에 不過하게되며 隨筆的傾向을 띄고 나옴으로서、決코 批評의 本道가 發揮되는것이 안이며、그의 굿세인 獨自의 地位를 賦與케하는 道理가 아님을 알어야할것이다。 그리하야 本格的批評의 獨自的 發展은 極端한 印象主義批評家들에게서 흔히 엿보는것가튼 批評은 一種의 告白이니 懺悔文이며 自敍傳의 一部이며 素朴한 裁斷的 客觀主義의 反撥로써 더욱 放恣한 마음의 흐름는 때때의 泡沫이되고마는것으로는 到底히 骨格盛한 批評文學을 樹立하는 方法이 못되는것이다。 그것은 도리혀 批評의

一獨一 自性을 損傷하며 軟化하는것이다。 우리는 充分히 感動的이면서 感傷에 빠지지말고 個性에 立脚하면서도 狹隘한 小我에 溺死하지말고 豐富한 感性을 包容하면서도 無性格한 隨筆文學이되여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는 過去에잇서서도 그리 치안흔 批評文學의 將來를 豫想할수잇는 만흔例를 볼수가잇다 「嚴密한 意味에 잇서서 現代의 批評方法은 그以前에는 存在치 안혓다」고 「부란데스」로하여끔 말하게한 「산트·부ー브」는 처음에는 가장印象的日記가튼것의主觀的批評으로 出發하엿스나 그後에 自己의批評態度에 不滿을 늣기여 마침내 客觀的批評方法을 取하게되엿든것이다 그러나 그의 個性의豊富한 感性과 文學藝術에對한 넓은理解와 情熱로써 科學的批評의 根據로삼앗스니 그의優秀한批評家의 한사람이된 事由가다 어느兩極端에 떠러지지안코 도리혀 客觀을 浸透시킨 主觀性과 主觀을 浸透시킨 客觀性의 구든結合으로써 過去의만흔 批評家는 훌륭한自己 내톄의 性格을 形成하엿든것이다 例컨대 印象批評家라고 稱呼밧든「쎄ー라가튼사람도 그를 單純한 印象主義者라고하는것은 誤謬라고 말할수가잇스니 그는

一深一 刻한文學的 센치멘트以外에 또한 獨創한 知識과 卓越한 判斷力을가지고잇섯든것이다 또 우에서도 言及하엿든「혜ー느」는 그의情熱과 體臭와 巧妙한 心理描寫까지도 致行함으로써 그의大文章을만들고 가장 主觀的印象과 享受를가지고 가장 客觀的인 作家와時代의 闘爭을 巧妙하게 그리든「부라데스」의 諸作에서 우리는 批判的精神과 創造的情熱의 아름다운 結合을 볼수가잇는것이다 이에잇서서 나는 偉大한 主觀은 偉大한客觀에 一致한다는 아포리즘의 眞理性을 다시 생각하여볼수가 잇는것이다。

一漢詩一

題重陽 押香 梧岡考選

三等之五 京城府樂仁町六五ノ八 李寬鎬

漢陽三載又重陽·
故國霜鴻客感長·
白髮轉添今日雪·
黃花又吐去年香·
龍山風落參軍帽·
栗里人傾處士觴·
遙憶揷茱應小一·
看雲眠罷夢中鄉·

新刊紹介

◀아이생활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積善町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定價十錢

◀春 第一號 發行所 東京市牛込區早稻田町十一 木文方 東京學生藝術座 定價十錢 編輯所 京城府義州通二ノ四五 振替京城二五〇一八番

◀[illegible] 第八十四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illegible] 振替京城二二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兒童文藝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仁寺町九八 兒童文藝社 振替京城六三四九番 定價五錢

◀時兆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凉里町 時兆社 振替京城五七四二番 定價十錢

◀[illegible]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定價三十錢 [illegible]

暮學館筆記 新羅의官位 (中)

(三) 蒼匪

그런데 本紀에按하면 祇摩王이太子로 잇슬때 父王婆娑를 從하야楡食의澤에 遊獵을하고 도라오는길에 韓岐部를지나게 되자 伊飡許婁가 饗宴을베풀고 許婁의妻는 少女를 데려내여춤추엇다 이때에 摩帝伊飡의妻가 亦是自己의女를끌어내여 太子가보고 조하하매 許婁는 맛당치안하는氣色이나타낫다 婆娑王은 그눈치를채고 許婁더러말하기를 此地의 名이大庖(庖는 庖의誤字인듯하다 왜그러냐하면 大庖는「한기」即韓岐의異譯으로볼수잇는 지닭이다)인데 公이盛饌美酒로 잔치를벌렷스니 位를酒多로하야 伊飡의上에잇는것이맛당하다하고 摩帝의女는 太子의配로 하엿는데 酒多는 後에角干이라하엿다고하엿다

右記事中에 酒多라는것이무엇이며 酒多를 後에 角干으로 고첫다는것이 무슨말인가 한번討究할 問題다 職官志에는 酒多라는 名稱이 보히지안헛슬뿐아니라 儒理王紀에는 十七年에 倭人이 木出島를侵하야 거늘 角干羽烏를遣하야 防禦하엿다한즉 角干으로 쏘것이 不拘하고 婆娑王以前에 이르러 婆娑王以後에는 酒多를角干으로 改한것가치 追記하엿스니 이것이무슨까닭인가 우선酒多라는意味부터生覺하여보자 대개 酒多는 술이만타는뜻으로 보아서는아니되겟고 그것도方言의音譯으로보는것이可하겟는데 三國志에按하면 辰韓에 [illegible] 長師가잇서 大한者는 自名을臣智라한다하고 後漢書에 按하면 辰韓에도 諸小邑에 各其渠帥가 잇는데 大한者는 臣智라한다 하엿스니 酒多는臣智의 轉語인듯하다「사뇌자」(삼차)는 三書의 互用例는 前에도말한바이니 酒는 臣의 轉音이라하겟고 「다」는「자」行의音이 混用된實例도 東明、朱蒙이 同一人인것을 미루워알수잇스니 그러면多는 智의 轉音이다 그러므로 酒多가 即臣智의 轉譯된稱號이것고 徐伐酒多卽徐伐臣智舒弗邯으로말하자 舒弗邯은 角干으로 쓰기도하는 故로「酒多는後에 角干으로 改하엿다」한것이니 所謂後라고 한것은 婆娑王以後를 가르친말이아니라 大輔前에는 酒多라고 稱하다가 後에角干이라하엿다는말이다 解하면可하고 또婆娑王이 角干이라하지안코 酒多라고한것은 同王의時까지酒多의職이잇서 그런것이아니라 習慣에依하야 舊職名을 그대로부른것이라 할것이니 今俗에 協辦을參判이라하고 秘書丞을 承旨라고부르는따위라하겟다。

조선어표준말모음 (28)

둘재、비슷한말(近似語)

깍둑깍둑 切刻貌
꺽둑꺽둑 同大
깍둑거리다 切刻
꺽둑거리다 同大
끽정이 少年떠군
재리 幼年떠군
까딱하면 若或少誤則
자칫하면 若或少差則
까들까들 鮮麗貌
까드락까드락 同甚
꺼들꺼들 以下各大
꺼드럭꺼드럭
까들거리다 輕薄
까드락거리다 同甚
꺼들거리다 以下各大
꺼드럭거리다
깔깔 笑聲
껄껄 同大
깔끔깔끔 不潤滑
깔죽깔죽 同强硬
깜빡깜빡 瞑眨貌

깜빡깜빡 同强
깜작깜작 瞑眨貌
깜짝깜짝 同强
끔벅끔벅 以下各大
끔뻑끔뻑
끔적끔적
끔쩍끔쩍
깜박거리다 瞑瞬
깜빡거리다 同强
깜작거리다 瞑瞬
깜짝거리다 同强
끔벅거리다 以下各大
끔뻑거리다
끔적거리다
끔쩍거리다
깜짝깜짝 驚動貌
꿈쩍꿈쩍 同大
끼꽝다 瞑漠
끼마아득하다 同甚
깍살리다 消財、害人
까불리다 散財
까불까불 連續搖動貌

깔죽깔죽 斷續搖動貌
깔작깔작 同淺
깔신깔신 同輕捷
꺼불꺼불 以下各大
껄죽껄죽
껄적껄적
껄신껄신
까불거리다 連續搖動
깔죽거리다 斷續搖動
깔작거리다 同淺
깔신거리다 同輕捷
꺼불거리다 以下各大
껄죽거리다
껄적거리다
껄신거리다
까불질하다 簸揚
사레질하다 簸淘
사불질하다 篩過
깜깜하다 眞黑
껌껌하다 同大
캄캄하다 深暗
컴컴하다 陰暗

까팡이 甕片
까팡돈 同錢形
깨다 睡覺(自動、他動)
깨우다 使覺睡(使役)
깨이다 睡被覺(被動)
깨닫다 覺
깨치다 理解
깨우치다 使理解
일깨우다 使覺醒
깨소금 荏末(調味用)
깨고물 同(塗餠用)
깨죽거리다 不平
께죽거리다 同大
깨지락깨지락 不敏捷貌
께지럭께지럭 同 大
껄떡하다 眼疲
깔딱하다 同小
걸어질리다 同甚
꺼멓다 深黑
까맣다 同小
껍질 皮
껍데기 殼
껍줄 皮層
깍질 以下各小
깍대기
깍줄
께 [illegible]
애게 同平等

께죽께죽 厭食貌
깨죽깨죽 同 小
꼭뒤 頭後部
덜미 項後部
꼴 狀
꼬락서니 同鄙稱
몰골 體貌
꼬리 尾
꽁지 鳥類尾
꽝꽝 痛聲
꿍꿍 同大
꼬장꼬장하다 老健貌
꾸정꾸정하다 同 大
꼬챙이 串用棒
꼬치 串
꽉차다 充滿
깍차다 食量充滿
꽥 꽥 高叫聲
꿱 꿱 同大
꽥지르다 高聲叫
꿱지르다 同大
꽤쓰다 用詐
꽤피우다 同發表
꽤부리다 同行使
꿀떡꿀떡 嚥下貌
껄떡껄떡 同開口
꼴딱꼴딱 同 小
꿀쩍꿀쩍 液動音

꼴짝꼴짝 同小
꿀쩍거리다 液動
꼴짝거리다 同小
꿈적이다 微動
꿈적거리다 同類
꿈실거리다 同大
꿈질거리다 同遲鈍
꾸벅거리다 坐睡
꾸뻑거리다 同强
꾸부정하다 微曲
꼬부장하다 同小
꽁 꽁 擊鼓音
콩 콩 同重
꿰매다 縫綴
얽어매다 結合
꿰어매다 略縫
끈끈하다 性質黏
깐깐하다 同小
끈적끈적 黏貌
깐작깐작 同小
끈적거리다 黏
깐작거리다 同小
끊어지다 絕
끊치다 終絕
끄나불 繩
끈 [illegible]
끔찍하다 [illegible]
놀랍다 可驚

꽁 꽁 沈痛貌
낑 낑 同勞甚
끝나다 終了(自動)
끝장나다 終局
끝내다 終了(他動)
끝장내다 終局
끝막다 終結
끄트러기 切餘株
끄트머리 末端
끼다 挾
끼우다 挾入、使挾
낌새 事物機微
눈치 人心機微
매개 事物形便
낌새채다 忖度事機
눈치채다 忖度心機
눈치알다 知心機
끼얹다 撒加
끼뜨리다 撒投
각배 同母各生
이복 同父各母
각각하다 小鹹
건건하다 同粗
간드러지다 明朗軟美
산드러지다 態度輕快
간수 鹵水
간국 鹹汁
가누다 收拾
거누다 同大

가득하다 滿
가뜩하다 同强
그득하다 同大
그뜩하다 同强
가든하다 輕捷
가뜬하다 同强
갈꽃 蘆花
갈품 蘆絮
갈보 賣春女
간나희 醜行女
가랑가랑 殆溢貌
카랑카랑 同盛、晴冷貌
가래 痰涎
가래춤 痰唾
가르랑가르랑 喘息聲
갈근갈근 同痰聲貌
갈잎 濶木葉
가랑잎 枯濶葉
갈굿다 凶獰
갈사납다 獰悍
갈데사납다 同甚
갑하다 [illegible]
갑쫀으다 同[illegible]
가불가불 [illegible]
까불까불 同强
갑작스럽다 忽然
급작스럽다 急迫
갑작이 倉卒
갑작스레 倉卒然

讀者와記者

◀應植君! 웨消息이업느냐? 속히오너라 오면조흔집 사주겟다 普成專門學校前에서 文房具店兼食堂을하는집인데 六間瓦家다 價格도大端히 安價로呼價하고잇스니 오기만하면 곳사주겟다 花洞家

◀讀者諸氏中下記書籍中 一冊或은 數冊이라도 讀後에 [illegible] 左記住所로 [illegible]
一、永遠의 微笑……沈熏作
一、故鄕의 歌人……方仁根作
一、그女子의 一生上下……李光洙作
一、英語大學……以文堂書
府內明倫町三丁目七二ノ八 鄭侯用

◀社交室讀者Ⅰ生에게 貴下가 뭇는「わかもと」本舖所在地는 左記와갓사오니 그리아시요
東京市芝公園大門際 榮養と育兒の會
社交室讀者S乙生

◀男子二十一歲 文房具外交及販賣의 六年間經驗이 有함 如何한業務나 活躍코저합니다 地方이라도 希望합니다 保證人도잇습니다 同情하시고 採用하실곳 [illegible] 朝鮮日報販賣所內 金潤燦

◀小生은 二十三歲의 男子。 普成高等普通學校三學年生徒이올시다。 今般家情에 依하야 下宿을求하게되엿습니다。 卒業後까지라도手苦를 보아주실宅이잇스면 左記住所로 一葉通知하야주시기 바랍니다
府內明倫町三丁目一九五ノ一 張

◀小生은 某高普校와 某實業學校를 卒業한 當年二十一歲男子로 外交事業又는 商店員等에도 多經驗이고 資產家保證도 잇사오며 信用을할時까지는 無給料로何處何事勿論코 하야볼決心이오며 寫眞術을 배우고자하는분도계시오면 食事만 處理하야주시오면 無給料로 男女間勿論하고가르처드리겟나이다 府內라면더옥조흐나 地方遠近不拘하시고本欄으로 通知하야주시오면 即去하겟나이다
決心生에게로

◀洪均先生이여 안령하십니까 지금어데서무엇을 하옵십니까? 三年前에吉林서 변호사代理를보다는 消息을들엇스나 其後消息이渺然하니 잡갑합니다 讀者諸氏여 右先生을아는분이 게시면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면 謝을 들이겟슴니다
奉天省興京縣永陵街同和 桂城山

이러한感氣와胃腸病은 結核의第一步

結核의 初期에는 感氣型、胃腸型、有熱型、神經衰弱型等무릇六種의型이 잇고 더욱 感氣나 胃腸病이라 生覺든 것이 結核의初期엿든 때문에 病勢를 惡化식힌實例는 實로多數한數에 達하고 잇다。

結核에걸리기쉬운

예전에는 遺傳이라고 生覺든 結核도 로ー벨트·고쯔호가 結核菌을 發見한以來、傳染性의 病이란것을 알게되엿다。 그러나사람은 나서 十四五歲가되면 十人中九人은結核菌의傳播를 바드면서도 發病하는者가 極히少數이다。 그래서도리혀 體質說이 唱導되여 體質이잇서、그體質이잇는사람에 結核菌이 傳播되면은 發病한다고미더지게되엿다 그러나 이런때는 그體質이라고 하는것은 반드시 先天的特殊한것이 아니고、內臟機能이어느곳이、弱해진程度의것을말함수잇다

即나면서 아모리튼튼하엿든사람이라도、不規則한生活을하여 無理를거듭하면 當然內臟의機能이 弱해져서、結核體質이되는것이다 例하면、暴飮暴食을늘하면、胃腸이 弱해져서 營養을 攝取할수업고 발든이疲害를이르켜 衰弱해진다、하면은 抵抗力이減退하야 體內에 結核菌이 活動을始作한다 또常習的感氣에걸리는 사람이 如何이것을 輕視하야、治療를하지안으면、漸次機能이 衰弱하고 結核菌이 侵犯하게까지된다 이와가티 어떤疾病이잇서 營養에障害가이르고、抵抗力이 減退하야、

活動을始作하

아제까지눌려잇든 體內의結核菌이날개를펼치고 活動을始作하는 狀態를結核의 發病이라고하는대 그原因의疾病에依해 胃腸型 感氣型 心臟型 神經衰弱型 貧血型 有熱型에 分類한다 [illegible]으로感氣에 걸리여 이런것은 普通이라 곳 낫는다고 安心하면은 容易히 身體의 느른함을 해칠수업고、或은 기침이끈치지안는다 또 過食을하야 胃腸을 害하고、밥맛이드는 時季이여서 節食이어렵고 滋養기늘잇서 馬肥되는 好時節에漸漸파리해진다 이러한때에感氣다 胃腸病이다 라고알고잇서도、이미 結核菌이 꺼질을벗고、活動하고잇슴이 만흠으로速히姑息한手段을바리고 徹底한療法을取하지안으면病勢를惡化식히는例가만타。

이러한때에第一效果잇는方法으로專門家의推奬하는것은活性해ー에菌劑「錠劑わかもと」의內服이다 이해ー에菌이라하는것은非常히 複雜한成分을가진微生物로、그主成分으로말하드라도 아미노酸、구리고ー겐、脂肪酸、燐、鐵、칼시움、비타민A、B、D와가튼體組織을 길너 骨格을 强하게하고 抵抗力을 길느는 優秀한 榮養素를 비롯하야

胃腸의活動을活潑케

하는 活性酵素、호로몬等을含有햇을뿐아니라 體內의 病菌毒을 殺滅하는白血球를增殖시키는힘이 特히 顯著한것이다 따라서 이미結核으로서 發病하야進行하는때에『錠劑わかもと』를쓰면 結核菌의 勢力을누르고 依復을 速하게도結核까지는이르지안으나 그前驅的症狀을보고잇슴에對하야는能히 榮養을旺盛케하고抵抗力을强하게하야 發病을豫防하는것이다

結核과精神의安靜

肉體의安靜은、 [illegible] 上에 必要하나 [illegible] 者는大抵、神經過敏이되여、精神이 [illegible] 하야 不眠에괴로움을바더 [illegible] 그때문에 [illegible] 하는 [illegible] 이잇스나、여기에對하야 [illegible] 劑와가튼것으로 [illegible] 하든지、 [illegible] 을取식히든지 하는것은、 [illegible] 을만들기쉬울뿐아니라、이러한藥品의濫用은、食慾을衰하게하야 도로혀病勢의惡化를助長하는危險이잇다 이러한때는「錠劑わかもと」를먹으면은 [illegible] 이되는누구려인과 레치징을包含햇슴뿐아니라、神經의疲勞를쉬게하는비타민도豐富하야 生理的安眠을促進하는作用이잇슴으로 何等의副作用이업는 精神의安靜을어들수잇는것이다

解熱劑에依하지안는 結核의自然下熱

熱氣가잇서서――하야 一般이自意로解熱劑를濫用하는것은弊害를 따르는것으로 最近米國에서도 解熱劑의中毒國、마미노피링의 中毒이激增하야 惡性의貧血이르켜死亡에이르는사람이 大端히만타고하여진다。

元來 發熱의原因과狀態는 病에依하야 大小다름이잇는것은身體의一部에

腫脹

이생긴때、그炎症의影響으로 發熱한다든지 또胃腸加答兒나消化不良에도 屢屢發熱이따르다 急性傳染病의發熱은 病菌의毒性體成分과 新陳代謝에依한生產毒素때문에 人體細胞가 破壞되여 筋肉及臟內酸化로 作用이이르는一便 毒素가直接溫中樞를刺戟하는때문이다

感氣의原因은 아즉알수업는것으로 그發熱은 呼吸器粘膜의炎症、細胞의破壞를따르는 酸化作用의亢進이原因인듯하며 인푸루엔서菌에依한 流行性인때는 病菌毒素의作用도 따르는것이라고 보여진다

結核―肺結核、肋膜炎、腹膜炎等의發熱은말할것도업시結核菌毒素에依한

細胞

의破壞現象과 溫中樞刺戟의重複症狀으로나타나는것으로、그熱은初期中에는所謂微熱程度를執拗繼續하야때로는屢屢高度로올은다、體溫이놉하지면、病菌의種類에따라서는發育이낫버지고、高熱을맛나면死滅하는것도잇슴으로、더욱더高熱을내여 病을곳치는方法도어떤種類의病에는適用되나結核病에는熱그自體는病菌에直接作用을안함뿐아니라 熱에依하야 重要한體成分인

蛋白

質의分解가旺盛하야 저서急激한衰弱을가저옴으로原因이困難하고、또解熱劑로 熱을누름은病을解消하는것도困難하다

그래서、近時에는結核의下熱法도여러가지로硏究되여잇스나 純正藥用해ー에菌劑「錠劑わかもと」는解熱劑를包含치도아니하는대、이것을服用하면은自然的結核熱에서 效果잇는것으로實用되여잇다。 이藥은、白血球의喰菌作用과肝臟의解毒作用을旺盛케하는 酵素、비타민、구리고ー겐等을包含하야 全身에 抗病力을 함에잇끄러、諸臟器의衰弱細胞를更生식혀、新陳代謝를活潑하게하는作用이잇고 病菌毒素에

旺盛

依한衰弱을救하는多種의榮養素를 包含하고잇다

即『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야熱이나리는것은結核菌의勢力이주러드는自然現象이고또病이그만큼조화진證據인것이다

더옥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際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千錠入의二種은 一日五六錢에도맛지안는廉價로 發賣되고잇스나近來그聲價를利用하야 效果疑心할類似品(酵母、비ー루酵母劑라)을 推薦하는藥店도잇슴으로 注意하시요

내가實行한 肺結核療法

(鹿兒島) 加藤眞吉

나의結核은 昭和七年에 發病하야지금까지 오랜病으로 大略血後에는 醫師의藥으로 其外가진注射藥等아침七時부터밤十時까지 거진三十分마다먹고잇섯다 最初에約半個年間은 그服藥 또는注射에實로充實하엿스나 經過할때라한가지두가지 조화하지안는 藥이작고생겨『錠劑わかもと』만이남어잇다『錠劑わかもと』는 故意로남겨두고 다른것은버렷다는것은아니나 全혀自然이엿다 今秋부터나의病狀은 다음과가티異狀이업다

一、微熱―업다、잇서도感氣熱로十日以內에낫는다
二、盜汗―업다
三、睡眠―充分하다처음날밤에 不眠하여도翌夜에곤함이한번도업다
四、痰과기침―잇다그러나날들이실허하는程度는아니다
五、食慾―잇다大食이다口味가업다든지多少食慾이낫분듯한때는節食을함으로 다시原狀恢復이된다
六、體量―病前보다二貫餘量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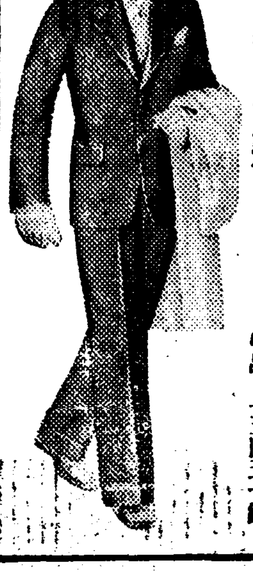
●高級紳士向 羅紗オーバー (新毛織裏付) 一枚値
純毛 黑ラシヤ 紺ラシヤ 片前型 二尺八寸 二尺九寸 五圓八十錢

●高級紳士向 羅紗オーバー (新毛織裏付)
黑ラシヤ 紺ラシヤ 兩前型 三尺 三尺一寸 六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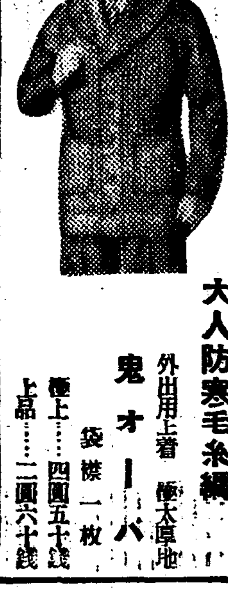
●高級紳士向 ペロアーオーバー (洋朱子總裏付)
黑色 紺色 片前型 二尺八寸 二尺九寸入 八圓九十錢

●最高級紳士向 ペロアーオーバー (洋朱子總裏付)
黑色、紺色、兩前型 三尺 三尺一寸 九圓五十錢

●最高級紳士向 ウーステッド背廣三ツ揃服
絹袖裏付 絹シルバカ裏付 茶系萬人向 上品 十二圓五十錢 特品 十五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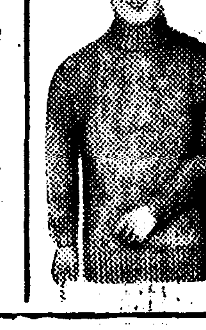


大人防寒毛糸編 鬼オーバー
外出用上着 極太厚地 袋襟一枚
極上……四圓五十錢
上品……二圓六十錢



純毛鬼太トツクリ型 アンダー (折返型)
大人用……一枚値
最上……四圓六十錢
上品……二圓〇五錢
並品……一圓四十錢
中太總柄……一圓八十錢

純毛ハート型アンダー
大人用……一枚値
鬼太……四圓三十錢
中太……二圓二十錢
中太……一圓四十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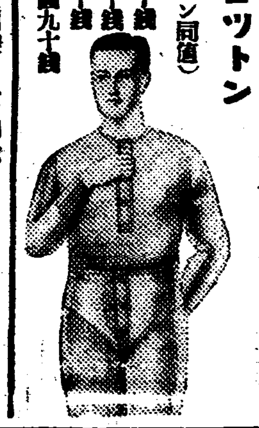


●毛糸カブリ型 大人用チヨッキ 一枚値
細地 一圓九十五錢
總織 一圓五十錢
鬼太 一圓十錢
●前開型チヨッキ
細地 二圓十錢
中太 一圓四十五錢
鬼太 一圓二十錢

カブリ 前開

大人用防寒毛糸股引 厚地も、引 一本値段 一圓九十錢

純毛メリヤスコツトン
各品一枚値段(上着ズボン同値)
三〇五純毛 一圓十錢
三〇九純毛 二圓七十錢
三〇〇純毛厚地 三圓五十錢
三一六スムス兩面 三圓九十錢



▲御一報次第直ニ代金引換ヲ以テ御送リ申シマス
カタログ進呈 (各種商品入精詳細御申込下さい)
名古屋市千種驛前 百貨卸問屋 大脇商會總本店
電話東二〇〇〇大番 振替名古屋二〇八五番

切取線
景品券
此券に付 御買上五圓以上お買上の方へ一枚 引換で景品を御送りす
名古屋市千種驛前 大脇商會本店宛
切取線

● 景品付防寒大脇毛糸 [illegible] 五圓以上御買上の方へ [illegible] 代金引換で御送金します

〃修學旅行〃 …… J·스로-리코共演

토-키創作方法

토-키몬타쥬論의昨今 (2)

林蔚川

아메리카人이 레뷰와 오페레라와 舞臺藝術에 讓語를맡긴어서 토-키-라고 레뷔를부르지다만 돈모호키에奔走하는동안 로-키-本質에對하야서의 研究와 論爭이늘어간것은 歐羅巴에서서다.

토-키-理論으로서 이러타할만한內容을가진것을 여기서 一一히 例擧해서 批評할것은省略하고 토-키-에잇서서 가장基本的인 問題는 音과畵面과 聽覺的인것과 視覺的인것과의 處置다 初期로 말하면 大體로-키-는 卑俗的으로 音과 畵面이 處理되여 잇다 卽 한가지는 音이 絶對的인 優位를 가진것으로 音樂이연출 境遇에는 아메리카風의 레뷰가되엿고 音이 말로서연출 境遇에는 全혀 演劇的이엿다. 그런『形式』은 토-키-의 正道가 아닌것은 누구던지 오날 理解하는點이다. 視覺的要素를 强調해서 畵面에 附加된 音이라할것가트면 토-키-는 여전히 無聲映畵의 延長에 不過한것이고 또 그와 反對로 聽覺的要素를, 音을 中心으로하는 토-키-랄것가트면 音과 畵面은 有機的으로 結合될수는없다.

問題는 이音과畵面의 有機的結合을 考究하는것이 토-키-本質과 藝術論에의 命題라할것이다 이것이最初로 理論化되기는 러시아에잇서서다 卽 몬타-쥬論의 當然한 歸結로서 토-키-에의適用을 말하는것이다

몬타-쥬 그것의理論的體系로 말하면 지난여름에筆者가簡單하게紹介하얏이잇지만은(朝鮮日報) 原來의몬타-쥬는 러시아의 푸도킨이나 에이젠슈타인等의論文에서보는것에 잇는것이 아니라 亞米利加에서 發見된것이다 卽 運動의連續의印象을 가지기爲하야 撮影된斷片의 技術的統一方法으로서 몬타-쥬라는말을 쓰게 되엿다 그런亞米利加派는 몬타-쥬構成을 藝術的效果의獨自의要因으로서 評價할줄모르고 다만材料에 對한關係에 잇서서 有益한役割을하는 藝術的手段으로서보앗슬뿐이다 同時에 佛蘭西에잇서서는『材料의리즈미칼한組織의要因으로서의몬타-쥬』라고해서 몬타-쥬를 映畵藝術의 要素로서 評價하고잇다 그런亞米利加,佛蘭西의몬타-쥬를 러시아映畵가비로소 觀客에對한獨自의 心理的,生理的作用을하는要因으로서 몬타-쥬를 利用하게된것이다 正當한 評價로서러시아의푸도킨이나 에이젠슈타인의몬타-쥬理論은 오날에이르기까지의 (토-키-몬타-쥬까지도) 映畵藝術論가운데서가장貧實的이고 現實的인것은事實이다 러시아의 몬타-쥬論이 노피날리고 사실 오끄친의토-키-의 基本的 特徵으로 認定되는理由는 다른一般映畵理論이 理論에만끄친데反하야 製作을키-노-트로한 純粹한創作方法論인것이다 처음으로 크레쇼피그다음에 리모센코 푸도킨 에이젠슈타인 에이르기까지 發展되야있다

여기서 아프로 토-키-몬타-쥬論을말하기前에 몬타-쥬의 意義를具體的으로 理解하기로하자

푸도킨은映畵監督과 脚本家가운데서 映畵의 基礎는 몬타-쥬라고하는 말을하고잇다『映畵監督에依해서된 필림의 모든신(場面)은 마치單語가 詩人에게 잇서서와가튼關係다 그는 필림의斷面아페서서 여러가지로苦心을하고 藝術的인 콤포지숀(組立)을 생각한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몬타-쥬의文章 이라고할 한개의 쎈텐스가생겨지는것이다』여기 한作家가 하나의 單語 가량『白樺』라는字를 쓴다고하자 이白樺라는 單語는 말하자면 어떤一定한對象의 記號를 表示는하고잇다

그러치만 何等의精神的인 內容을가지고잇슴은아니다 이말은 다른여러가지말과結付되고도더욱複雜한形態를가질때 처음으로 藝術的인生命과 現實性과를 獲得할수잇는것이다 내가이제 아페 잇는册을펴고곳『白樺의淡綠色』이란 句를읽는다고치자 암만해도 훌륭한文句라고 할수는업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單語와, 그것을結合시킨것과의 相異를 明白히 낫타낸다 表示한것이라해도 조타 이러한것가트면『白樺』는 單只記號的인 規定이아니고 文學的인形式이되여잇다 生命이업는 單語가藝術가운데 잇서가지고生命을 어든것이다』

國際劇場會議

佛蘭西의 피르만제미-에의主唱에依하야 成立된 同國의 주-르·로만氏를 會長으로한 國際劇場會議는 會議國오-스트리-의 원나-에서 第三回大會를열엇는데 二十個國의 代表百十名의參加로 九月二日부터 다음과가름 討議를 하얏다

一、드라마 오페라 오페레트에 關한件
二、監督及舞台裝置의件
三、映畵 國民劇場 國民祭에關한件
四、社會劇場制度에關한件

燈下不明

레-라의歎息

로바-트·레-라-가 天下에有名한스타-가되엿다는것은 오래전일인데 등잔밋치어둡다는格으로 撮映所의門衛가 아즉事實을 몰으고잇섯다

레-라-가 女俳優 폴린니와 約束한일이잇서서 그의 방으로 들어가랴하니 門衛가하는말이

『여보시요 이방은女俳優푸니의 방이니 들어가지마시요』

하야 레-라-는 여러가지 辯解를 하얏스나 도모지 許諾치안헛다.

『나는 레-라-라는 사람인데 우니와 約束한일이잇스므로 이 방에꼭드러가야됩니다』

하고 레-라-는 哀願 하얏다

『하-그러니 당신도 俳優 신모양입니다그려!』

門衛는 레-라-가 俳優인것을 알고야비로소 許諾하얏다

레-라-는 겨우『푸니』와의約束한 用務를마치고 나오면서내가 세상에서有名한 俳優가되라면어느때가될가 撮影所의 門衛도 알지못하는 나의存在……』

하고歎息하얏다

(사진은 로바-트·레-라)

★曆★ 十二月六日(日) 舊己亥十月大(廿三日) 壬戌·水·畢·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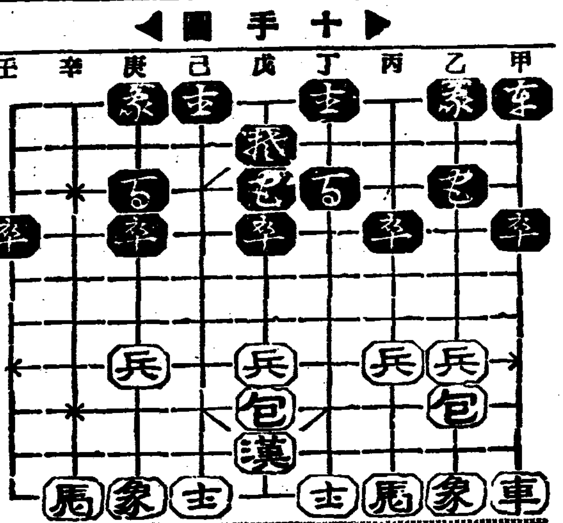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大雪七日(舊廿四日)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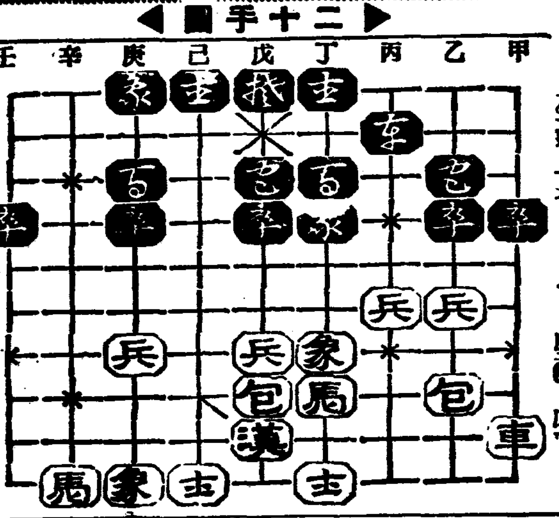
兵一減 漢先手 李在鳳 楚 李命輝

◀十手圖▶



丙十馬—丁八
乙二●—丁二
丙七兵—丙六
丙四●—乙四
乙十象—丁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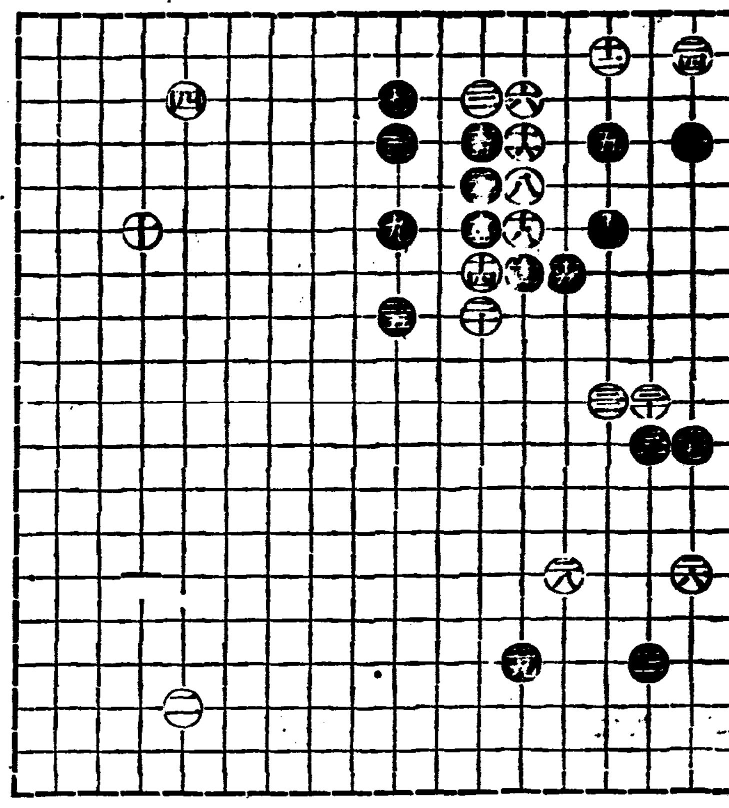
◀十二手圖▶



甲一●—丙一
乙七兵—乙六
丙二●—丙三
甲十車—甲九
戊三●—戊一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辛의六 ○庚의六 ●己의七 ○辛의八 ●辛의五 ○辛의三 ●癸의四 ○丙의二 ●癸의八 ○丙의十四 ●丙의十一 ○己의十四 ●庚의十六 ○丁의十 ●丁의十一 ○戊의十



觀戰후談 白戊의二는 依例着點이나 中央進出이 弄强일듯 先後錯誤가 안인가 白丙의十四를 黑이丙의十一로 對應하은 制彼保此하난 意圖인듯 白이丁의十八點은 本是法方이쓴 進就如何를 企待하노라

라디오

五日(土曜)

◇午後六時 (平) 童謠와唱歌 一、齊唱 燈石 二、獨唱 무아가 三、輪唱 어름지치기 四、併唱 가을밤 五、獨唱 希望 六、齊唱 제비가오는나 七、獨唱 제비꼿 八、二部合唱 저녁종 光成普通學校生徒 獨唱 李應天 同 黃南秀 伴奏 韓順復 指揮 宋昌一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韓晳容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 執杖歌外 一、執杖歌 二、平調歌 三、제비가 四、휘모리 尹一枝蓮 朴玉姬
◇同八時三〇分 바이올린獨奏 協奏曲 第三番G長調…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 알레그로 伴奏 林春沃 李興烈
◇同九時 野談 出天之孝 庾秋岡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音新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七時三〇分 (東)謠曲
◇同八時五分 (名)地唄
◇同八時二五分 (東)라듸오·콩메듸

六日(日曜)

◇同九時 時事解說
◇午前〇時五〇分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山念佛 三、배뽕가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변조난봉가 金鄧瓊 金泰運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어린이映畵이야기 〃빗나는참마음〃 成東鎬
◇同六時廿五分 心田開發講演 〃菜根譚〃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卅分 따-스네게 一、女學時代 二、滿洲의진풍멋 三、新作서울구경 四、아름드리소 申熙吉
◇同八時 女聲合唱 一、故鄕…도니제티作曲 二、黃昏…멘델라여作曲 三、五月아침…라코메作曲 四、觀迎歌…하이든作曲 曲 恩惠의나라·모델 指揮 尹聖德 伴奏 李百淳
◇同八時二五分 音律 靈山會相 玄琴 李彦植 洋琴 李承煥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益 細笛 韓鼎朝 杖鼓 李章夏
◇同八時五五分 連續唱劇調 一、短歌、楚漢歌 二、唱劇調 三國誌中 三顧草廬 李東伯 鼓手 丁元燮
◇同九時五〇分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빠이올린獨奏 一、라쭈리아…코렐리作曲 二、軍隊協奏曲 作品十六…베리오作曲 피아노伴奏 朴桂貞 植賢淑

第一放送
◇午後六時 (福)라듸오·스켓취
◇同六時二五分 產業뉴-스
◇同七時三〇分 (東) 散文詩
◇同七時五〇分 (東) 長唄
◇午後八時二〇分 (東) 寄席

七日(月曜)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令 三、신아위 四、굿거리 細笛 韓成俊 大笒 方龍鉉 奚琴 金德鎭 杖鼓 池龍九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女性과衣服 任晳宰
◇同六時 童話 〃도독고양이〃 盧良根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汎亞米利加會議의經濟的意義」 韓昇寅
◇同時三〇 常識講座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 (東) 피아노·빠이올린獨唱(第四回音樂콩쿨優勝者) 一、빠이올린獨奏 빠이올린協奏曲 第五番A長調…모잣트作曲 第一樂章 鳩山寬 二、獨唱 (가)무덤에서…부라-므스作曲 三、피아노獨奏 바가니-니의主題에依한練習曲A短調…리스트作曲 植田都馬子 小園登史子
◇同八時三〇分(平) 배따라기外 一、긴아리 二、도라지타령 三、라령 四、배따라기 五、山念佛 六、변조난봉가 金山月 金春紅
◇同九時 連續唱劇調(第二夜) 一、短歌 鎭國名山 二、唱劇調 三國誌中 軍士서름 鼓手 朴綠珠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 俗曲
◇同六時(城) 童謠 (歌와피아노)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獨唱
◇同八時三〇分(大) 義太夫
◇同九時(東) 講談

韓氏膏藥 四世六傳
한씨고약
韓氏膏藥
項腫에
乳腫
에창등
痔疾 連珠瘡
一切에 特效한
韓氏膏藥
平壤·本舖
中城韓藥局

新發賣 30錠入 40錢
鎭咳袪痰(新藥)
ブロチン (부로친)
三 SANKYO 共
感氣 氣管支加答兒
肺結核 肋膜炎
百日咳其他……一般으로咳嗽喀痰잇는吸呼器諸症에推奬된다……
ブロチン은氣管支의蠕動運動을昂進시켜痰의喀出을容易하게하고同時에鎭咳의效果가잇는것으로何等有害成分을包含치안헛다
效果佳良 無副作用 應用安全한것이알리여發賣以來 二十有餘年 實驗諸家間에愛用되여잇다。
(說明書御申越次第進呈)
錠 30錠 ¥.40
末 50瓦 ¥1.00
液 100瓦 ¥.85
別로大量入包裝數種이잇다。
全國知名藥舖에서販賣함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此品五十錢相場 此品八十五圓相場 ◆金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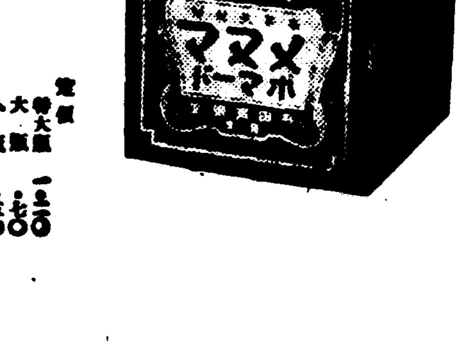
堅實職業
紙袋製造는家庭에서男女不問確實引受
太陽社營業部

ガクブチ仕組機械
高山ガクブチ製造會社 名古屋市赤萩町三

優美館 貫鐵町 電光三九五
近來稀有의名映畵大封切! 十二月五日부터特別大興行!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마리오케-링그氏監督作品!
존·뽀-루스氏 그라디-스·오사스드孃主演
로지타
PCL超特作大巨篇 山本嘉次郎監督作品! 榎本健一氏一役主演
エノケンのどんぐり頓兵衛
高尾光子 伊達里子 市川朝太郎 小島洋洋 助演
其他 뉴-스
豫告 奇拔한新舞踊의無敵의豪華陣! 京劇團 藝苑座大公開 公開日切迫

團成社
五日封切(五日間) 每日午後一時半、六時三十分 三回
◆獨토비스超特作映畵 하리·삘監督 알리안센·시빌쇼리主演
世界의王者
人間과超怪獸大…
◆유니바살特作映畵 奔放한大衆娛樂映畵 포리스카롤 때라루고시主演
大鴉
漫奇殺人趣味의絶對的興味映畵
◆新興키네마特作映畵 高津慶子主演
磯の夕波
次週封切

メヌマポマード (메누마포마-도)
頭皮가乾燥하면비듬이생깁니다!
美髮에비듬은有害합니다洗髮後는メヌマ를頭皮에발라서濕潤케하십시오 이것은비듬을自然으로防止하는效果的美髮法!
끈적이지안코 芳香美妙
변해어지안코 容易洗髮



定價 特大瓶 大瓶 小瓶 新小瓶
東京 大阪 井田京榮堂
MP-18

五百餘反滿軍集結 朝鮮側襲擊劃策

一部五十名과警察隊交戰에 反滿軍四名을射殺

【新義州】 지난이십칠일이래 반만군 왕봉각(王鳳閣) 양사령(楊司令)좌사령(佐司令)일파 한무단 오백여명이 평북창성(昌城)대안 고자구(高子溝)부근에 집결하여 조선측을 습격하려고 밀정을 파견하야 동정을 탐문중이라는 정보를받은 관전현주둔○○부대와 경찰대○명이 출동하야 수사중 지난일일 고자구북방사리(高子溝北方四里)에서 그중일대오십여명과 충돌되여 교전한결과 반만군네명을사살하고 무긔(武器)다수를 압수하얏다한다

萬餘圓의經費로 楊市公堂落成

二日落成式擧行

【楊市】 평북룡천군양시(平北龍川郡楊市)는 일만에가까운 인구를 포용한 도시로서 오래동안 일반시민의 집합장소가업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백락주(白樂柱)씨를 위원장으로한 공회당기성회(期成會)가 조직되여 과거 오륙년동안 진실간흡한결과 드듸어 지난사월에 공회당기공식을보게되엿든바 거시월중순에 공사가끗나 지난이일에 그공회당내에서 성대한 락성식을거행하엿다는바 공회당은 건축비륙천원 기지대(基地代)오천여원합 일만천여원이 들엇다는바 연건평(延建坪)은 일천이백십팔평으로 능히 팔백여명의군중을 수용할수잇는 벽돌양옥으로 양시의큰 자랑거리라한다 이공회당의 건축락성은 방금 공사중에잇는협궤철도(陝港鐵道)개통과 아울러 양시발전에도 큰의의가잇다한다

存廢岐路에 섯든 清南學校에 曙光

有志崔東善氏가引受經營키로 四日引繼手續終了

◇寫眞……崔東善氏

【清州】 저간모사건으로 인하야 폐쇄의비운에빠젓든 청주청남학교(清南學校)는 교장소열도(蘇悅道)씨가 사면한이래 교주를 일케되여 경영난에빠저 리명구(李明求)한정석(韓定錫)씨등사씨가 후원회를 조직하야 그대책을협의하엿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그후비운에빠진동교를 구하기위하야 주야노력중이엇섯든데 청주읍회의원최동선(崔東善)씨가 그자세한 내용을 듯고자긔의힘으로 될수잇는정도이라면 인수하겟다는것을 언명하엿슴으로 전긔사씨는 최씨를방문하고 그구체책을협의한결과 금후로는 긔독교관계를떠나 최씨가동교와 생명을가티할것으로 결의하고 지난사일오후네시경 인계수속을하야 조인까지하엿다한다 삼십년동안의긔력사와수만흔인재를 길러낸동교가 일시존폐의기로에섯섯든대 최씨로인하야 서광을보아 무산아동유영긔관인동교는 이로서 긔초가견고하게되엿다한다

◇……本格的嚴冬의前哨──六花로輕裝한名勝牡丹峯一帶

吸煙레벨低下

【平壤】 애연가 대중에게 극도의 자극을 주게된 지난사월일일부터 단행한 담배갑의 폭락인상은 담배팔리는데에 엇더한 영향을주엇는가 하는것은그 당시에 보도한바잇섯거니와 이제 평양전매국 십일월중순의통계를보면 매상고 총액은 삼십만구천륙백사십일원으로 전월통그에비하면 이할구부칠리의 증가이나 이것은계절관계로 매년특가을철에 보드라지는 현상이어서 환전차이가업스며 작년동긔와비하면 일할칠부의 증가이나 갑을올리기전과 비교하면겨우일리(一厘)의 증가밧게업서자연증가를보다도 낫다 이리유는 물연히 갑을올리기때문에 고급품은 저급품으로레벨을 떨리첫고 가장현저한것은 십이전의'마코'등은 팔전의'히'란'당으로 변해버린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라하며 전매당국에서는 락관하고잇스나 그러나 흡연의경신도 십상치는안허 담배갑을 올린것은 틀려쓰 마이너스가 되고만형세이라한다

松禾普校에火災

四間一棟半燒

【松禾】 지난사일오후 팔시경에 송화읍내리 송화공립보통학교 숙직실에서 불이일어나 싸이렌을 울리자 즉시로 소방조가 달려가 약한시간후에 진화되엿는바 그원인은 이날동교에서 화면 롱호리 갱생부락중견인물 이십여명을 모아노코 청년단조직다화회를 열게되여 송석(宋石)교장이하 교직원이 모여 오후칠시부터 동교제륙학급교실에서 다화회를 개시하엿슴으로 숙직원인 리모흥도(李某興道)도 숙직실을 비워노코 다화회에 참석하고 다화회실에 등불이부족함으로 소사에게 등불을준비시킨것인데 불을켜고 남은 등영어리를 석유통한모퉁이에 던진것이 실화된것으로 손해는 약팔백원가량이라한다

姦夫姦婦가共謀 本夫를絞殺潛跡

一個月만에新乫坡에서逮捕 ─犯行을一一히自白─

【咸興】 간부부가 공모하고 본부를 교살(絞殺)한 치정참극! 단천경찰서에서는 지난달일일 단천군북두일면 룡천리(龍川里)의 산중에 노끈으로 목을 졸라매여죽은 시체가잇는것을 발견하고 검시한결과 동리에사는 김주정(金鋪鼎)이라는것을 알게되야 곳그범인을 탐하고잇든바 지난이일 신갈파(新乫坡)서에서 피해자의처 심옥순(沈玉順)과 동리에사는 김태연(金澤淵)의 두명을체포하야 취조한결과 드듸여 그 하야온든바 최근에 본부가 그눈치를 채이게되자 후난을 두려워한 간부부가 공모하고 본부가 자는틈에 노끈으로 목을 졸라매야 죽인것이라한다

痲藥密輸盛行

新義州署嚴警戒

【新義州】 신의주에는 최근 마약(痲藥)(아편·코카인)밀수가 성행하야 매일 삼건내지 륙칠건의 밀수를 보이고잇슴으로 신의주서 사법계에서는 밀수범을 전멸식히려고 세관출장소와 련락을 취하야 극력경계중이라한다

一面一校完成 祝賀會盛況

四日金川公普서

【金川】 황해도금천군(金川郡)에서는 군내초등교육 일면일교제가 지난이월에 완성되엿스므로 이것을 축하하기위하야 지난사일오정에 금천공보교에서 일면일교제 완성긔념축하식을 거행하고 따라서 교육공로자(教育功勞者) 신구범(愼久範)외 십륙인의 표창식(表彰式)을 거행하엿스며 식후 학교관계자와 관민유지 백여명이 회합하야 성대한긔념축하연회가잇섯스며 더욱이 좌긔와여한긔념행사(紀念行事)가잇서 대성황을이루엇다한다

一、十二月四日부터三日間各學校兒童學業成績展覧會

一、十二月五日 教育總會와體操講習會

▲…竣工된 楊市公會堂…▲

本格的嚴冬의前哨 南北에尺餘積雪

【淳昌】 제해지 순창지방에도 다시 총설이 분분하게되여수만리재동민에생도가 한층우려된다 지난이일밤부터 일기가졸한하여지고 모진바람과 아울러 금년최초의강설을 보게되엿는대 평지에 싸힌눈이 약삼촌가량으로서 온화한남국지방에서는 첫눈으로 자못보기드문바라하며 방금도풍세에따라 간간계속중인바 갓득이나 엇는없는세궁민과 수만재해동가에 이중의고통을늣기게되여 그들의 생활전도가긍도로 암담하다고한다

【羅州】 전남나주지방에는 지난이일밤부터 과연히 금작히 저하하야 엄한(嚴寒)의 전초(前哨)가완연하더니 이일오후세시경부터 백설이나리기 시작하야 밤까지계속한것이 이미두치 이상이라하며 례년에 비하야 약일주일이 빠르다고한다

【牙山】 충남아산지방은 지난사일부터 눈이나리기 시작하여 상적 상의 대설이 나리게되엿는데 례년에비하면 약이주일가령느젓다고한다

【信川】 황해도신천지방에는 지난사일오전여덟시부터 눈이 내리기시작한눈이 사일까지 계속하야내리는눈은 사일정오까지에 약두자가량되여 근래에 드문큰 지장이엇다한다 이러케 첫눈이 만히내려서 례년의맥작(麥作)은 물론 그외의 작물까지도 대풍작을 예상하야 일반농가에서는 깃버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平壤】 사일아침 평양에는두번재의 눈(雪)이나려 삽시에 은세계를 나타냇다 아희들은 조화라고 길가에서 학교운동장에서 눈싸홈이 벌려젓다 령하십도를가라치는 긔온이기때문에 눈은녹아스지를안코길에 딱어러부터 행인의 넘어지는수가만헛다

水組事務所全燒

損害萬圓

【海州】 십이월초나흔날 새벽세시십오분경 연안읍(延安邑)내에잇는 연해수리조합(延海水利組合)숙직실에서 불이붓기시작하야 동조합사무소가 전소되엿는데 동내 소방조의 활동으로 진화되엿다 원인은 경찰에서 방금조사중으로 아직판명되지안핫스나 화재보험(火災保險)에든것이 一萬圓을 훨씬넘는다고한다

廿五萬圓工費로 釜山水族館設置

經費는一般寄附金으로充當 明年度엔着工豫定

【釜山】 부산부에서는 어업자들의 참고에 공하는동시 일반민중의 오락급 관광시설로서 수족관(水族館)을 설치하고자 수월전부터 각관계자들이 일본내지각처에잇는 각설수족관을 시찰하는동시 여러가지로 조사연구를하던바 지난사일 부청소회의실에서 각관계자들이 회합하야 그구체적방법수립을 협의하얏다는데 그내용의 대강을 듯건대 경비이십오만원으로 콩크리—트의 견고하고도 미려한 건물을 만든다고하며 그경비의 대부분은 부내의 특지가들의 긔부로서 하기로한다고한다 그리고 공사의착수는 기부금모집여하에 의할것인데 될수잇는대로 명년도에 착수하도록한다고한다

私立學院을期成

順川安國里民의敎育熱 全洞民이合力하야

【舍人】 입학난에 울고헤매이는 이세국민들의쓰린정경은 해마다 봄이오면 도처에서볼수잇는 딱한일로서 평남 순천군하에도기맥히는사정은 다름것이업다 보교입학년령에도 시험제도를 두어 정원의사오배나되는 지원아동에서 선발하는 고심도 문제려니와 내쫏기움을 당하게되는 어린이생의 탈락학비에야 과연 그누구의 죄과일가? 이에 생각한바잇는 사인면 안국리(安國里)리민일동은지난이십오일에 리민대회를 개최하고 이백명에갓가운 그동리 아동교육문제를로 의하고저 그곳로창준(盧昌俊)씨댁에 모히여 양경수(楊景洙)씨사회로 개회하야 사립학원설립을 결의한후 즉시 긔성위원회를 조직하야 긔금조달에 착수하엿다는바 위선 동민가가호호에서(大豆)한말씩을 내이겟다고 만장일치로결의하얏것가금일백오십원 미두 안국사(安國寺)에서 오십원상포계(喪布契)에서 오십원기타의연금오십여원합치당일의 삼백여원의긔금이결정되엿다한다 그래서 동위원회에서는 교육긔관의급속실현을긔하고저 계속활동할것을 선언한후 희망에넘친성황으로서 대회는끗맛치게 되엿다는데 아프로 활동케되는동위원회의 진용은 다음과갓다

▲委員長 韓學俊 副委員長 楊景洙 ▲委員 一、(萬村)崔錫涉 二、(成村)金宗杰 崔昌瑞 盧鐵濟 朴炳喆 三、(石龜)弓在坤 弓在甫 朴鳳煥 四、(蓮花洞)崔在健 金允賢 五、(春村)李成俊 金允道 韓炳基 六、(鵝底)金鳳官 張在觀

舊市街街燈實現

南門町新倉里間에百五十燈 商工振興會運動奏效

【平壤】 평양구시가에는 가등(街燈)의시설이 아직까지도업서 퍽도 시대에뒤떠러진 뭇그러움이 잇서 구시가에도 속히가등을가설하라는 소래를놉히든바 동회에서 수업시운동하엿거니와 상공진흥회(商工振興會)와 밀사의 활동으로 만흔난관을돌파하고 가등을세우기로 확정을보앗다 예산은 만원 남문정(南門町)에서 신창리(新倉里)까지의 도로연장에 칠간오개식 한계일백오십개의 가등을 세우게되여 오일오전중에 안재길상점(安齋吉商店)과 계약을 체결하게되엿다 이번설치하는 가등은동히 십오척의철제(鐵製)가등으로꼭대이에는 오십촉전구세개를 달게되는 최신식의 장치를하는것인데 계약즉시로 공사에 착수하기로되엿다하니 우리평양구시가도 현대도시로서의 손색이업슬날이멀지안핫다한다

竊盜질로資金어더 浴湯經營타發覺

平壤署員에게就縛

【平壤】 황해도신천읍출생(信川)으로 일정한 주소가업는 절도전과삼범 림산천(林山千)(三〇)은 소화구년오월이십륙일 경도(京都)형무소에서 출옥한후 일본내지에서 전전하다가 금년사월말에 부산(釜山)에 상륙하자 잔교(棧橋)부근에서 현금이백원이 드러잇는 어떤려객의 손가방을 절취한것을 비롯하야 팔월중 경성역(京城驛)에서 일백칠십원 개성역(開城驛)에서 오십원 신막역(新幕驛)에서 삼십원 사리원역(沙里院驛)에서 구십원 경의선(京義線)에서 십원을 절취햇고 다시 경성동대문(京城東大門)에서 각차표를 절취해가지고 사리원에서 대화관(大和館)이란 목욕탕을 경영하기 시작햇든것이 평양서에 탐문한바되여 일체가 탄로낫다 이자는 이외에도 범죄사실이 만흔모양이어서 계속취조중이며 김산성(金山星)이란 가명을 가지고 각지에 출몰하든것이 판명되엿다

大正普校學藝會

【安東縣】 안동현 대정(大正)보통학교에서는 오는 오일 동교강당에서 학예회를 연다는바 일반부형은 무루내참하여 주기를바란다고 한다

平壤에同情週間

四萬細窮民을爲해 十日부터一週間

【平壤】 평양부사회계(社會係)에서는 부내전폭에서 세궁민조사한결과 그수가 사만여명에달하므로 년말을압두고 궁박에빠진현상을 그대로 방관할수업서 평양, 대동량서(平壤大同兩署)와 협력하야 십이일부터 일주간을 세궁민동정주간(細窮民同情週間)으로 정하기로 되엿다 동정금은 일구이십전이상으로 하고 평양, 대동량서에서 취급하기로 되엿스므로 만히동정해 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地方人事

▲吳世源氏(瑞興產業組合理事)新任人事次本報瑞興支局來訪

▲韓天錫氏(瑞興郡地方森林主事)新任人事次本報瑞興支局來訪

▲毛麒鑾氏(興南毛利醫院長)開業人事次 本報興南支局來訪

▲李儀府氏(辯護士)十二月二日木浦府南橋洞自邸에서 遭內艱

贈答品에는… 明治の菓子 明治製菓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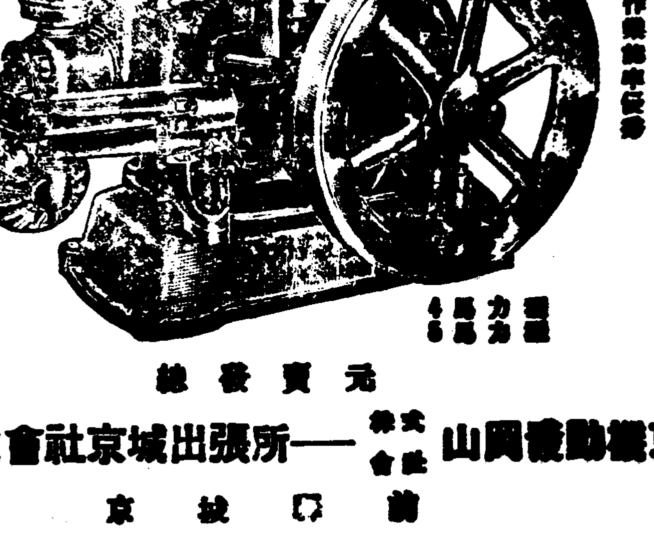
京城 金 地金 銀 賣買 分析 金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本(2)○○七

急告 全鮮콜럼비아레코—드販賣店各位 今般콜럼비아레코—드人氣歌手 蔡奎燁吹込의 시달닌가슴 四○七二七
俄然大好評으로第一回、第二回、第三回大量入荷分이모다賣盡되엿슴으로 미리注文하섯슴에도應치못하와 매우罪悚하게되엿사오니 第四回大量入荷에際하야 即時가초아두십시오
忽然品切 好評藉藉 流行歌 시달닌가슴 蔡奎燁
또다시品切되기前의 콜럼비아特約店에서 試聽하신後 한시밧비 사두시기를바람니다
日本콜럼비아蓄音器會社 京城支店

山葉ピアノ 家庭用(竪型) 500圓以上 學校用(平台)1·000圓以上 (全鮮各樂器店에有함) カタログ贈呈 日本樂器會社出張所 (京城本町一 電本三四八五)

간질

淋疾 五淋錠



世界唯一·完璧을誇함 農業用小型얀마—디—젤 發賣開始
◎本機의五大特長
一、燃料消費가三分之一、石油發動機의十分之一
二、始動簡單、男女子라도容易히運轉할수잇슴
三、馬力强大、作業能率優秀
四、모—타—와如히一定한室을不要하고移動自在
五、運轉에危險이絶無
◎特約店募集 詳細型錄進呈
總發賣元 山岡發動機京城支店 株式會社 山岡內燃機株式會社京城出張所

新線營業開始 十二月十一日から 黃海線海州·翠野間の鐵道運輸營業を開始致します 朝鮮鐵道株式會社

皮膚病良藥 테—무水는 ◎殺菌作用으로 ◎消毒作用으로 ◎收斂作用으로 ◎滑澤作用으로 피부병양약 테—무水 發賣元 東京藥院

全朝鮮不動産抵當 個人間貸借金利

◎殖銀調査課發表

朝鮮內不動産抵當個人間貸借金利(今年四月)

(年利) 最高 最低 普通

道	區分	最高	最低	普通
京畿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均	日本內地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朝人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貸借期間과 一口當貸借金額

個人間의 不動産抵當貸借의 契約期間은 一個年의것이 가장만히 總數의 七割八分一厘를 占하고 六個月、二個年、三個年의것이 그다음이오 五年을넘는것은 殆無하다 그러나 借換을包含한 實際上의 期間은 이보다길어 三個年의것이 最多이오 二個年、五個年、一個年의 順位이며 五個年을넘고 十個年에及하는것이 若干이잇다 그러고 一口當貸借金額은 一百圓內外의것이 가장 多數를 占하고 三百圓內外의것 五百圓內外의것이 그다음이며 千圓以上의것은 드물다

擔保價格에 對한 貸付金比率

擔保不動産에 對한 貸付金比率은 時價의 最低四割乃至最高九割의 範圍에잇서서 六割乃至八割이 普通이고 七割內外의것이 最多이다

	件數	千分率
四割內外	三	五
五割內外	三五	六六
六割內外	五九	一一一
七割內外	二一七	四〇七
八割內外	一八八	三五三
九割內外	三一	五八
計	五三三	一、〇〇〇

不動産抵當個人間貸借의 趨勢

昭和十一年의 不動産을 擔保로한 個人間貸借의 趨勢를 調査하면 前年에 比하야

增加된것 一割一分三厘

減少된것 七割三分一厘

增減업는것 一割五六分厘

로 昭和七年減少에 轉한 以來 一路減少인것갓다 그러고 其程度는 前年의 七割二分三厘에 對하야 今年은 七割三分一厘로 八厘의 增加를 示하야 些少이나 [illegible] 減少事由를 觀察하면 [illegible] 主因으로서

(一)[illegible] 高利債整理의 必要를 [illegible] 高利債整理低利資金이 散布되어 借替된것이 만흔것

(二)朝鮮殖産銀行、金融組合及東洋拓殖會社等의 金融機關을 利用하는것이 만흔것 特히 此等金融機關의 一般低金利에 順應하야 貸付利率引下는 個人間의 高利債整理를 一層促進하고가다

(三)[illegible] 債務及田畓價格의 昂騰은 農家의 [illegible]

(四)個人貸金業者中에 新規貸出을 [illegible]하고도 他業에 轉한者不少한것

等이며 其他地方的特殊事由로서 鐵道 河川 水電工事 大工場起業費의 散布 海産物收入의 增加 豐作等의 事由가 잇다

다음으로 貸借增加된것의 事由로서

(一) [illegible] 土地[illegible]資金

(二) 物價高 [illegible]

(三) 水害 旱害 冷害等에 因한 [illegible] 又는 生計資金이 [illegible]

等이다 其他[illegible] 水電工事等에 伴하야 [illegible]

個人間貸借現高 九千五百卅萬圓

[illegible] 組合에 對하야 金融 [illegible] 個人間貸借에 對하야 [illegible] 其區域內의 現在推想高 [illegible] 村落組合五百七部市組合三十三 合計五百四十組合에 對하야 [illegible] 이것을 全朝鮮의 金融組合六百九十八에 比하면 七割七分四厘에 當하고 村落組合과 都市組合의 同比率은 村落에잇서 六百二十六組合의 七割九分七厘 都市에잇서 七十二組合의 五割三分一厘에 當하다

右資料를 村落組合及都市組合區域의 區分에 依하야 定하고 또各一組合當平均高로서 [illegible] 推算하고 各道內의 個人間貸借現在高를 推算하고 全朝鮮十三道分을 合計하야 九千五百三十三萬八千圓을 算하얏다 이것을 前年의 一億五百二十一萬五千圓에 比하면 九百八十七萬七千圓의 減少이엇다

肥料價格決定權 朝窒에서 主張

獨占의 弊가 잇슬가 念慮하야 總督府에서는 方針闡明을 保留

肥料統制法實施에 關聯하야 朝鮮配給問題를 圍繞한 朝鮮窒素의 主張은 極히 重視되는바 同社의 主張하는바는 如左한 諸點으로 總督府와의 사이에 諒解工作이 進行中이다

一、朝窒은 日本內地統制組合에 參加치 안는다

一、朝鮮內配給을 爲하야 朝窒은 三十五萬噸을 提供하고 各地에 常備在荷를 行한다

一、肥料配給公定價格을 日本內地와 朝鮮 一本價로 한다

는 三項은 大體意見이 一致되고 目下 妥協이 안된 點은

朝窒은 日本內地法令의 趣旨로 보아 朝鮮의 供給에 就하야서는 朝鮮內製造業者가 責任을 가지고 輸移入其他도 製造業者의 手를 通하야 하는것이 當然하며 公定價와 配給의 責任을 負하는것이 當然한 權利이다

라고 主張함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製造業者가 朝窒單一社임으로 獨占에 陷할 念慮가 잇서서 이點에 關한 方針闡明을 保留코잇는 點이라 한다

硫安組合加入 朝窒에서 拒否

肥料統制法에 依한 硫安製造業組合은 日本內地에서 今月中에 結成될터인데 朝窒의 同製造業組合加入問題는 大野政務總監이 斡旋하야 野口遵氏에게 合流를 勸奬한바 잇섯스나 朝窒社長野口遵氏는

朝窒은 朝鮮에서 別個의 統制法適用을 受하고잇슴으로 日本內地의 製造業組合에 加入하야 日本內地統制法의 適用을 受함은 二重結縛이다

라고 이것을 拒否한모양이라 한다

農會配合奬勵 補助案決定!

朝鮮農會에서는 本肥料年度부터 肥料共同配合을 積極的으로 勸奬助長키로 되어 如左히 具體案을 決定하고 本肥料年度부터 實施키로 되엇다

一、配合手數料一叺七錢中에서 一錢을 道農會에 割戾하고 이것을 配合肥料奬勵施設에 補助함

二、邑、面奬勵事務를 補助키 爲하야 一萬圓을 補助하고 各道農會에 配合叺에 按分하야 交付함

三、京畿、慶南、黃海、平南의 四道農會에 對하야 配給倉庫施設을 補助키 爲하야 一萬圓을 交付함

春肥配合 三百萬叺?

春肥需要期에 直面하야 朝鮮農會의 春肥配合은 十一月二十七日 新義州配合所가 配合을 開始한것을 비롯하야 全朝鮮十一個所 配合所가 各其配合을 開始키에 至하얏는데 各道의 配合申込은 四百萬叺中에 못될터이라한다 今年은 單肥를 極力配合으로 고치어 使用식힐方針임으로 單肥購入은 前年度보다 減少되고 反對로 配合肥料는 前年度의 二百七十萬叺을 突破하야 三百萬叺에 達할모양이라한다

北朝鮮航路의 特産出荷旺盛

北朝鮮航路는 特産의 本格的出廻에다가 鰮油肥의 最盛出荷에 入하야 西海岸의 閑散에 反하야 旺盛한 荷動이 繼續되어 目下 朝郵、盛京、新京(四千噸)사스마(五千噸) 佐賀(三千七百噸)의 四隻商船의 三千五百噸三隻이 各其滿船이고 그러고도 船腹不定으로 朝郵에서는 北永丸(六千

棉花共販量激減

六千六百萬斤이 豫想된다고

比前年實績三四%減

【農林局發表】昭和十一年度의 棉花共同販賣는 九月廿十日 黃海平南으로부터 開始하야 明年二月廿九日 全南을 最終으로하고 全朝鮮八百七十個所의 共同販賣를 終了할 豫想인데 十一年度收穫豫想高는 一億四千九百十六萬六千五百一斤이며 販賣豫想高는 六千六百三十六萬五千六百六十八斤으로 收穫豫想에 對한 販賣豫想高의 比率은 四四・五%인데 昨年販賣實績一億八十三萬九千三百三十一斤에 比하야 三千四百四十七萬三千六百六十三斤의 減(三四%減)이다 그리고 各道別의 共同販賣豫想은 如左하다

京畿	三八五三、七四三斤
忠北	七、四二一、〇〇〇
忠南	七、〇〇〇、〇〇〇
全北	五、九六六、〇〇〇
全南	一五、九〇〇、〇〇〇
慶北	一一、二〇一、〇〇〇
慶南	八、一一七、〇〇〇
黃海	一二、〇〇〇、〇〇〇
平南	三、〇〇〇、〇〇〇
平北	七六三、二〇〇
江原	一、四一六、四〇〇
合計	六六、三六五、六六八

米廻着遲延

海港地가모다二、三十日식

品質不良、市勢關係로

鎭南浦의 海港出廻는 正租로米價의 不良關係와 市勢關係로 各港이모다 例年에比하야 廿日乃至三十日이나 遲延되엿스나 最近鎭南浦에는 一日平均 一萬四千石程度로 米倉의 民間米在庫는 十二月三日現在 十九萬六千石 前年同期에比하야 約十萬石減少를 示하고 朝鮮米를中心으로 겨우出廻期에入하야 各港米倉의 入庫米가 合計鮮米廻着不振을 뵈코잇다 한다

取引停止 (十二月二日)▲모ー터ー機械商京城府黃金町四丁目 三一〇金容男

고무需給樂觀

重要商品界事情

고무市況은 去年盛調를보여 海峽고무現物市勢는 又復新高價를示現하게되엇다 下半期의 推移를示하면

	最高	最低
六月	二六仙⅝	二五仙⅝
七月	二七仙⅜	二七仙〇
八月	二六仙⅞	二六仙⅞
九月	二七仙⅝	二六仙⅞
十月	二九仙〇	二七仙⅜
十一月	三一仙⅞	二九仙⅞

으로 十月以來의 騰貴는 特히 甚한바가잇다 至來十五日에開催될 國際고무價統制委員會가 明年度上半期의 輸出許可率을 七割으로부터 다시 五分引下할것으로 豫想되고잇는데 世界的으로 고무消費는 一段增加할 傾向에 잇스며 最大消費國인 米國의 十月의 消費는 九月에 比하야 三千二百噸을 激增한 一方으로 在荷는 九千噸의 減少를 보인것等需給狀態는 繼續하야 樂觀할情勢에잇스므로 고무市況의 强調도 當然한現象이라할수잇슬것이다 五日京城고무市勢는F A Q一封度六十六錢二厘五毛로 比前日七厘五毛 高이엇다。

金錢信託·配當引下

朝鮮信託에서는 金錢信託配當年四分四厘(一年以上四分六厘)를 繼續하얏스나 次期부터 幾分引下를 行하리라한다

外國人土地令 年內公布實施

朝鮮外國人土地令은 法制局에서 審議를 終了하고 年內에 公布하는同時에 實施케되리라한다

石油統制再檢討

重油以外는 無統制

價格浮動도 難免!

朝鮮의 石油統制는 石油業令의 施行以來 獨自的으로 强化되여 油類輸出入은 制期的으로 統制되고 重油와 如함은 面目을 一新할 配給整備가 行하얏는데 其他의 諸油類와 精製油에 就하야서는

一、重油同樣 總督府에서 販賣數量의 配定을 行하나 이것이 强制力이 업다

一、特히 日本內地로부터 移入油에 對하야서는 全然이것을 取締할 方法이 업다

一、現히 配定各社外에 九州石油 東洋石油等의 投賣物이 絕하나 그取締方法이 업다

等의 諸事情으로 油界는 統制下에 잇스면서 依然浮動을 難免하고 油價와 如함도 日本內地市場을 下廻코잇다 問題가 되여잇는 內油三社(小倉、三菱、早山)의 朝鮮撤退가 實現되드래도 日本內地油의 移入對策이 確立되지안는限 朝鮮의 油界安定策은 可望키 難하고 關係側에서는 現在의 石油統制再檢討論이 提議되기에 至하얏다 한다

無水酒精會社 來春設立

東拓系新會社

佐方東拓理事는 渡東中이든바 四日午後一時三十五分着 歸任하얏는데 如左히 말하얏다

朝鮮重工業會社의 設立에 關하야서는 進捗되지 아니하얏스나 無水酒精은 目下 獨逸에 工場에 關한 槪算을 照會中으로 大體『쇼ー라ー』法에 依하면 工場一單位能力二萬二千石 百萬圓의 資金을 要할모양이라한다 設計結果를 보지안코는 確實히 알수업고 設計가 되면 別個會社를 創立하게될것인데 그時期는 來春頃이 되겟다 資本金其他關係는 일즉이 等決定되지안핫다。來年度의 緬羊事業은 東拓으로서는 旣定方針대로 來年은 二千五百頭를 輸入키로 되엇다

(二百五十噸)의 二艘漁業契約하얏다。

經濟寸鐵

○ 朝鮮內肥料界에 獨占權을가진朝窒은 供給權、輸移入權을 가질뿐아니라 公定價決定權까지 가지자고主張

○ 저혼자 맨드는것이라기로서니 價格決定權까지 가지자는 것은 너무甚한말이아닐가

○ 總督府에서 이런主張을들을 理가 업스리라고 미더두자

商況 【五日】

株式 揉合裡에 鈍重

前場揉合 今前場은 朝取八十一圓七十錢 朝新三十圓七十錢에 寄付하고 鐘新은 百八十圓五十錢으로 六十錢高、東新百三十八圓七十錢으로 十錢低 日産七十七圓三十錢으로 三十錢高等에 寄付되엇는데 依然變方의 積極性이업서 揉合裡에 不振商狀을 繼續하야 結局鐘新三十圓七十錢 鐘新百八十圓五十錢 大新六十八圓二十錢 東新百三十八圓七十錢 日産七十七圓三十錢의 各寄付同價에 大引되엇는데 大引에東新이 一百六十枚의 實買가 잇슨것은 近來閑散場面에서는 稀有의 實買이엇다 後

實物前場取引

▲浦項第二新 三〇〇 ▲全北[illegible]

市勢全然鈍感

今日은 土曜日임으로 例休이다

▲東新 三五(寄) 三五 三五 三五 三五 三五 三五(引) ▲東滿興 [illegible] ▲滿洲採金 [illegible] ▲日本어젤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石川島造船 [illegible] ▲同 [illegible] ▲人造肥料新 [illegible] ▲大同産業 [illegible] ▲北樺太石油 [illegible] ▲旭絹 [illegible] ▲京春鐵道 [illegible] ▲龍山工作所新 [illegible] (取引高三三〇枚)

買疲勞인지 萬廣狀態인지는 몰라도 近日의 東新은 强弱材에 느긋에나 全然無感應인 狀態를 繼續中이라 그前途의 豫測조차 區區하다 卽 日中交涉이 決裂에 가까운狀態가되고 靑島의 紡績罷業이 悪化하야 陸戰隊가 上陸까지한 重大事態에도 激動되지안흐며 一方으로 年末金融이 緊迫되고 歐洲의 政局도 依然危機를 孕胎한채 推移되고잇스며 三十億豫算에 依한 인플레景氣의 實際的向上이 今後에 約束되는等의 好材料 乃至 好環境에 잇스면서도 이는 느끼지안는것가티 市勢는 鈍重한가운데 保合을 繼續할뿐이니 玉整理의 徹底와 新動機를 기다리기前에는 容易히 回復할수업는 狀態이다 다만 하나 注意할것은 이러한 强弱材相衝場面에서 雙方의 警戒가 嚴한 中에도 追擊賣가 特히 警戒되어 底堅味를 보이고잇는것이다 이것만은 特히 留意할 必要가 잇슬가한다

雜株依然保合

雜株의 步調도 特別한 材料가잇는것以外에는 不變의保合을 繼續中인데 大體로는 底堅裡에 推移되고잇다 大阪實物前場의 重要한者를紹介하면 紡績物은 日本紡績一〇五五〇 同新三七六〇 日華紡績一五五〇 日出紡績五四五〇同新一五五〇等이오 滿洲物은 滿洲三〇五〇東滿興業一四五〇同新一四〇〇日滿아루미六四〇〇同新一四五〇等이며 對蘇株는 日魯新三二五〇 北樺油四四五〇 同新四四五〇等이며 電工八二〇〇 同新一六五〇 日本데렐一七〇〇 同新一三五〇一六〇等이엇다 그리고同新一三五〇一六〇朝鮮도레칫는 今期配當은 一割二分(據公)으로 決定하고이와 同時에 七圓五十錢의 第二回拂込을徵收키로되엇다

鋼管株反撥=大阪短期鋼管은 今朝에 百一圓二十錢에寄付하야 百二圓二十錢의 高價를 보엿다 兩者 重工業統制說로 賣崩되고 또同社減配說等으로 賣進하야 低落하엿는데 減配는三分減인 一割四分은 確實하다는 說이 放送되어 買方의 再活躍으로 連日 反撥하게된것이다 그런데 一時는 鋼材界不振으로 低落되엇는것이 最近鐵供給不足等으로 最低價에서 二十圓乃至騰貴하엿스므로 實行코저 하는것도 無妨하다 이情勢는 今後도繼續될것이며 減配도 三分減配內定說이 確實한모양이므로 今後아직高價含으로 보아야할것이라고 한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一九 ▲第三五分利一〇〇七 ▲二回四分一〇〇二 ▲一回四分一〇一〇 ▲佛貨一九五六〇 ▲米貨六分半三二〇 ▲滿洲公債一〇〇二〇 四八二〇

▲甲五分利一〇〇三五 ▲二回四分 四分利一〇〇三〇 ▲一回 利一〇〇七五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短資關係强로 金融市場緊慢에서 遊資側의 買物이잇서 人氣는 繼續强調로 小刻이나 上價로올라 佛債는小高이며 米貨도 爲替安에서 三、五十錢高가되어 今後赤字公債發行이 잇더라도 發行價格케는보이지는안흘것이라고한다

米期 買氣益加 續高

前場頑强 昨後場阪地二十六圓 四十錢止와 共히 二十六圓五十三錢에 場을 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阪地初付二十九圓四十四錢인 四十高據하고 二十七圓 五十六錢인 三丁

六感

米……年末에 臨迫할사록市勢는 一步一步로 緊張味를 添하야昻騰▲政府米五十萬石買替를 强材視하는 反對派의主見이라할수잇스나 買上하는 그反面에拂下가 잇는것을 忘却치안는한 ▲妙味는亦是低價鬱鍊後의 押目買乎?

株……環境의不透明、强弱材의相衝으로해서 오래保合을繼續하고잇는東新은 바야흐로神經麻痺狀態 ▲氣迷되기쉽기는하되 그러타고더러노코賣付하는데는 底堅味를들어反對하고시픈걸 ▲비록年末에 本格的市勢를못내고 越年하더라도 實的景氣向上은 오히려今後에期待된다는터이니만치 今後의株界悲觀은實勢가不許

正米의 割高로 賣買顯著不振

朝鮮米의 第二回豫想은 第一回보다도 又復增收로 二千萬石을 突破하엿스나 舊調査方式으로는 一千五百五十餘萬石에不過하며 더구나 丸仁管內의 米作은 더욱不作을 告하엿슴으로 其他各地보다 比較的 高價일것이事實일것이나 此割高의 米가 將次如何히 處分될가하이 問題인데 日本內地는 農作地로서 朝鮮米를 買付할터 假定하더라도 丸仁管內의 米價가 低廉함으로 群山其他各地의 米價보다 [illegible] 日本內地 [illegible]

高價를 持續하고잇다 日本內地에서는 昭和八年度에 다음가는 豊作을 告하엿스나 一般米界는 政府의 政策又는 諸物價의 好轉을 唯一한 强材로하야 米價前途를 絕對觀落이 업슬것으로 觀測하고좀처럼 投賣할 傾向이 多하다 그러나 實需感을 市勢가좀 早晩間에 아무展開되지안흘것으로 [illegible] 市勢는 强調하다할지라도 高價는警戒를要하지안흘수 업다고 云云의 果如何?

大豊作을 忘却

陶醉된買人氣

第一回米作豫想을 發表한당時는 日本內地米六千七百八十四萬餘石 朝鮮米作約二千萬石으로 二十八圓三十七錢 高地는 二十六圓十三錢까지의 惨落을 告하더니 其後부터는 買氣가 漸々旺盛하야 第二回豫想을 發表하기까지 騰勢를 繼續하엿고 또一年中가 장米出廻期인 十一月을 經하고年末決濟期인 本月에 入하엿슴에도 産地出廻가 例年同期보다 旺盛치못하거니와 持主의低價賣의 不肯으로依然 [illegible]

後場續高

後場은 二十七圓五十九錢인 五丁高로 付한後 四圓五十七錢으로 [illegible] 六十錢으로 五十錢에 止하엿다 [illegible] 十四錢에 場을 止하엿다

堂島解合成立

【大阪電話通】四日堂島의 昨後場止價 二十九圓五十九錢으로 解合一萬九千百石과 當、先合意乘替四萬石이 成立되엇다 渡方은 地場軟派인 三萬石 林氏外 二萬九千百石 受方은 田中貞、山種三橋一派이다。

堂島前場情報【大阪電話】

解合과 合意解合好感으로 買氣

各地正米

京城保合

正租高와 定期反撥로 氣配不振이나 賣買는 매우 不振이다 四等二七、一〇 ⊕三等二八、〇〇 一等白米二二、〇〇

仁川不變

他地方에 比하야 割高關係로 조금도 팔리지 안코나 正租買付難에서 精米側은 非常히 困難한立場에잇다 正租는 目前下餘地가 업다고보고잇다 ⊕三等二八、〇〇 四等二七、七〇 一等白米二一、五五

釜山反高

處分的賣物이 相當이 賣富하나 採算良好와 定期高로 精米原料買와 先約側의 買埋等이잇서 賣買를보엿다 四三等二七、八〇 四等二七、五〇 一等白米二一、八六

大邱少堅

休日을압두고小口 買가散見되는 程度이오 環境不透明으로 一般은 買根據를 일흔 形態이다 定期高로 五錢高氣配이엇다 四三等二七、六五 四等二七、三五 一等白米二一、一五

群山堅調

奧地高와 正租出廻薄이데다가 採算이 맛지안허 倉入하는편이만코 日本內地注文도 二十錢程度의 價差로賣買가 成立되지안허 場面은 자

木浦少高

出廻薄과 定期好轉으로 低價에는 不賣하며 實需는 休日을압두고 當用必需買가 散見되어 底意堅調를 示하고잇다 四三等二八、一〇 四等二七、八〇 一等白米二一、六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地場軟派、東京側 ◇買方 地場硬派、東京側

賣方 … 買方 …

朝取期米 [illegible] 東京市場에 [illegible] 實勢[illegible] 各千石의 實物을 一掃하고 [illegible]

今日財界 五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七高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一高
⊕三等米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一〇低
東新	[illegible]	一〇低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糸	[illegible]	一〇高
大阪棉花	[illegible]	一〇高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一斤 [illegible]

金融 五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京城米穀◆ [illegible]

商品 五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鰮油冲價◆ ◆鰮搾粕冲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外米期米◆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大豆◆ ◆豆油◆ [illegible]

期米 五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圓)◆ [illegible]

株式 五日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短期主要株取組◆ ◆實定代引日步◆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大阪短期氣配◆ ◆東京實株◆ [illegible]

米 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府海岸町一丁目

米 株 東益證券商店 仁川 金益證券株式會社 光 皿

石金土金 賣買分析 金 銀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株式 賣買 東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